



이스라엘-팔레스타인 전쟁
최신 전황

2~4, 11면

교황청,
동성결혼 축복 허용

11면

한신대 유학생
강제 출국 사건

12면

여성 징병제
논란

14면

난민법
개악 반대

16, 15면

유대교 경전을
이용한 (구약성경)
시온주의의 거짓말

8~10면

하마스 저항에 공포 느껴 이스라엘군 자국 인질 오인 사살

관련 기사 4면

가자지구

미국 등 서방의 지원을 받은 죽음과 파괴

소피 스콰이어

이스라엘의 가자 지구 공격이 낳은 참상이 어찌나 끔찍한지 서방 편에 서 있는 기관들조차 가자 지구가 이제 생지옥이 됐다고 말한다.

폭탄·미사일·탱크의 공격으로 팔레스타인인 180만 명 이상이 살던 곳에서 피신해야 했다.

수만 명이 천막 생활을 하고 있는데, 천막이 모여 있는 임시 피난처에서는 질병이 빠르게 번지고 있다.

12월 초 한 유엔 고위 관료는 가자 지구 인구의 절반이 굶주리고 있다고 경고했다.

유엔 세계식량계획(WFP) 부국장 칼 스카우는 가자 지구에서 인도적 지원 사업이 “붕괴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가자 지구를 방문해서 목도한 “공포, 혼란, 절망”은 자신이 상상했던 것보다도 끔찍했다고 덧붙였다.

“물품 보관소는 무질서 상태였고, 배급소마다 수천 명이 절박하게 주린 배를 붙잡고 있는데다, 슈퍼마켓들은 진열대가 모두 텅 비었고, 너무 많은 사람들이 몰려 있는 대피소에는 화장실이 역류하고 있었다.”

세계보건기구(WHO)도 더는 침묵을 지킬 수 없었던 기관 중 하나였다.

WHO 사무총장 테드로스 아드하놈 게브레예수스는 이스라엘이 10월 7일 이후 가자·서안 지구에서 보건 기관을 공격한 횟수가 449회에 이른다고 말했다.

“의료진이 활동하기란 이제 불가능

하다.” 게브레예수스의 말이다.

같은 연설에서 게브레예수스는 샤워기가 700명당 한 개, 변기는 150명당 한 개뿐이라고 말했다.

“갈수록 더 좁은 지역에 더 많은 사람이 모이면서 과밀집 상태인데다 제대로 된 식량·물·주거지·위생시설도 부족해 질병이 퍼지기 딱 좋은 조건이 만들어지고 있다.”

WHO는 필수적인 인도적 지원을 즉각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가자 지구에서의 전투를 끝내라고 요구했다.

이스라엘의 가차없는 폭격에도 저항은 분쇄되지 않았다.

12월 초에 하마스의 군사 조직인 알카삼 여단은 가자시티에서 전투 사흘 만에 이스라엘 차량 79대를 파괴·파손했다고 발표했다.

이는 이스라엘군 전사자가 100명이 넘었다는 이스라엘군 당국의 자료와도 부합한다.

알카삼 여단은 성명에서 이렇게 밝혔다.

“우리 전사들은 셰이크 라드완의 한 지하터널 입구에 부비트랩을 설치했고, 이스라엘군이 진입하자마자 폭파시켰다.

“그 결과, 이스라엘군 소속 대원들이 사망하거나 부상당했다.”

또한 알카삼 여단이 공개한 영상에는, 가자 지구 북부의 탈 알자타르에서 알카삼 여단 전사들이 이스라엘군의 메르카바 탱크를 노리고 폭파시키는 장면이 담겨 있었다.



사진 출처: Wala / Wikimedia

이스라엘은 정치적으로도 군사적으로도 큰 난관에 처해 있다

저항 소식이 전해지자 가자 지구의 팔레스타인인들은 환호했다. “그들(저항군)이 저들의 탱크를 파괴했다. 우리는 여기에 머물 것이다. 우리는 떠나지 않을 것이다.

“떠나야 할 것은 저들(이스라엘인)이다.” 자발리아에서 한 남성이 한 말이다.

하마스는 이스라엘에 수감된 팔레스타인인들이 자유로워지기 전까지는 이스라엘인 포로를 더는 석방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제는 이스라엘 국가조차 하마스 분쇄가 애초 생각보다 더 오래 걸릴 것이라고 믿는다.

이스라엘 국가안보보좌관 짜히 하네그비는 이 전쟁이 “수개월 걸릴” 수 있다고 최근 말했다.

출처 Sophie Squire, 'Death and destruction in Gaza as west backs slaughter' (2023. 12. 12) / 번역 김중환

《랜싯》, 팔레스타인 사망자 수치가 정확하다고 확인하다

몇몇 서방 정치인들은 가자 지구 당국이 민간인 사망자 규모를 부풀린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달 초, 매우 높은 권위를 자랑하는 의학 저널 《랜싯》은 가자 지구 보건부가 이스라엘 공격으로 인한 사망자를 정확하게 집계해 왔다고 썼다.

“공개된 정보를 바탕으로, 우리는 가자 지구 보건부의 사망자 보고서를 그와 별개로 집계된 사망자 보고와 대조했지만, 사망자 비율이 부풀려졌다는 증거를 찾지 못했다.”

10월에 미국 대통령 바이든은 가자 지구 보건부의 발표를 일축하며 “팔레스타인인들이 사용하는 수치를 전혀 신뢰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 직후 가자 지구 보건부는 전체 사망자 명단을 공개했다.

서안 거주 팔레스타인인이 말한다

“올해 크리스마스에 베들레헴은 고요할 것입니다”

서안 지구에 사는 사진작가이자 영화감독인 나디르 마우지는 <소셜리스트 워커>에 이렇게 전했다. “여기 베들레헴 사람들은 올해 크리스마스를 고요하게 보낼 것입니다.

“예년 같은 크리스마스 축제 행렬이나 경축 행사는 없을 거예요. 베들레헴의 그리스도인들은 가자 지구에 대한 이스라엘의 공격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아무 일 없다는 듯 살아서는 안 된다는 메시지를 전하기로 마음 먹었어요.

“그 메시지가 울림이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이 귀 기울이게 되면 좋겠어요.”

12월 초 [베들레헴의] 여러 그리스도인 지도자들은 휴전을 지지하라고 촉구하는 서한을 백악관에 보냈다.

목사이자 신학자이고 베들레헴 소재 복음주의 루터교회의 목회자인 문테르 이삭은 백악관으로부터 응답이 왔는지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미국의 답변은 “유엔에서 거부권을 행사한 것”이라고 답했다.

“미국은 자국 땅에서는 크리스마스를 경축하고 우리 땅에서는 전쟁을 벌입니다.”

마우지는 서안 지구에서의 삶이 “불확실성”에 휩싸여 있다고 했다. 이스라엘군과 정착자들이 계속 공격 수위를 높이고 있기 때문이다.

삼엄한 일상

“아무것도 계획할 수가 없어요. 앞날이 어떨지 몰라요. 일상은 중단됐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TV 앞을 떠나질 않으세요. 가자 지구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정확히 알고 싶어하시거든요.

“저희 가족은 TV 좀 그만 보려고 매일 산책을 나가기로 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집 근처를 걷는데 폭발이 있었어요. 어디서 온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이것이 지금 저희의 일상입니다. 날마다 무슨 일이 벌어질지 도통 알 수가 없어요.”

마우지는 이렇게 덧붙였다. “군인들이 휴일·밤낮을 가리지 않고 들이닥쳐 사람들을 체포해요. 단속이 전보다 훨씬 삼엄해요. 예루살렘에 가는 건 거의 불가능하죠.

▶ 3면으로 이어짐

이스라엘이 유엔 표결을 일축하다

찰리 킴버

유엔 총회에서 가자 지구의 인도주의적 휴전을 촉구하는 결의안이 통과된 것은 이스라엘이 외교적으로 점점 더 고립되고 있음을 뚜렷이 드러냈다. 하지만 팔레스타인인들을 계속 학살하려는 이스라엘의 무자비한 의지도 뚜렷이 보여졌다.

겨우 8개국만이 이스라엘과 미국 편을 들어 결의안에 반대했고, 153개국이 찬성했다. 이 결의안은 법적 구속력이 없기 때문에 실제로는 아무것도 바꾸지 못할 것이다.

그에 따라 이스라엘 외무장관 엘리 코언은 이렇게 분명하게 말했다. “이스라엘은 국제 사회의 지지가 있든 없든 하마스와의 전쟁을 계속할 것이다.”

이스라엘 총리 베냐민 네타냐후는 군 지휘관들에게 이 전쟁은 “끝까지, 승리할 때까지, 하마스가 제거될 때까지 계속될 것이고, 그 무엇도 우리를 막을 수 없다” 하고 말했다.



네타냐후는 이스라엘군의 이스라엘인 인질 살해로 더 궁지로 몰렸다

바이든이 이스라엘의 전쟁 범죄와 미국의 방조를 시인하다

미국 대통령 바이든은 지난주 선거 유세 중에 이스라엘이 가자 지구 민간인을 “무차별 폭격”하고 있다고 말했다.

화요일 모금 행사에서 기부자들에게 이렇게 말했는데, 바이든이 지금까지 한 말 중에 가장 강하게 이스라엘 지도부를 비판한 것이었다.

바이든은 뒤이어 “하마스를 상대해야 할 필요성은 의문의 여지가 없”고 이스라엘은 그렇게 할 “일체의 권리”가 있다고 덧붙였다.

바이든은 “[이스라엘 국가안보장관] 벤그비르 일파와 신진 인사들은 팔레스타인(하마스)의 공격에 마땅한 응징을 원할 뿐 아니라 모든 팔레스타인인들을 징벌하려 한다”고도 말했다.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 사회를 파괴하고 팔레스타인인들을 가자 지구에서 추방하려 한다는 사실을 인정한 것이다.

‘휴먼라이츠워치’ 전 사무총장이자 국제법 전문 변호사인 켄 로스는 바이든의 이 발언이 미국이 전쟁 범죄를 지원하고 있음을 사실상 인정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로스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바이든은 이스라엘군이 가자 지구에서 전쟁 범죄를 저지르고 있음을 사실상 인정하고 있다. 무차별 폭격은 전쟁 범죄다. 미국 정부가 전쟁 범죄를 저지르고 있는 이스라엘에 왜 무기를 계속 공급하는지 의문이 제기된다.”

로스는 바이든의 이 발언이 “전쟁 범죄 사실을 알고도 방조한 미국 고위 관료들을 기소”하는 증거로 사용될 수 있으며, 잠재적으로는 바이든 자신도 기소될 수 있다고 말했다.

출처 Charlie Kimber, ‘Palestine round-up: Israel spurns UN vote’ (2023. 12. 15) / 번역 김동욱

하마스의 저항이 이스라엘을 떨게 하다

가자 지구에서 하마스 전사들은 “복합·다단계 매복 작전”을 펼쳐 이스라엘 군인 여러 명을 죽였다.

미국의 싱크탱크 전쟁연구소(ISW)에 따르면, 하마스는 우선 이스라엘 순찰대를 공격한 다음에 그 순찰대를 구출하려고 투입된 “신속대응군”(QRF)을 공격했다.

팔레스타인 북부 가자시티 슈자이야 지역에서 있었던 이 공격은, 3동짜리 건물 단지에 진입한 이스라엘 순찰대를 매복 공격하며 시작됐다.

이후 구출 부대가 투입되자 팔레스타인 전사들은 공격 목표를 순찰대에서 구출 부대로 바꿨다.

전쟁연구소는 이렇게 밝혔다. “하마스 전사들은 사제 폭발물을 터뜨려 신속대응군을 공격하고, 이스라엘군에게 계속 수류탄을 던졌다. 이

스라엘 측은 공격 부대 소속 전사자 시신을 수습했지만, 대대장 1명, 중대장 3명, ‘골라니 여단 전방지휘대 대장’ 등 5명이 추가로 전사했다.”

전쟁연구소는 이스라엘군 소식통이 하마스의 슈자이야 대대가 이미 “해체”됐고 “지휘 및 통제” 능력을 상실했다고 주장한 바 있음을 상기시키며 이렇게 썼다.

“이 매복 작전이 복합적이고 여러 단계로 이뤄졌다는 특성 때문에, 복수의 하마스 전술 부대 간 상당한 수준의 조율이 요구됐을 것이다. 이는 하마스 산하 슈자이야 대대 중 적어도 일부는 슈자이야 방어를 위한 군사 작전을 수행할 능력을 잃지 않았음을 시사한다.”

출처 Charlie Kimber, ‘Palestine round-up: Israel spurns UN vote – Hamas resistance shakes Israel’ (2023. 12. 15) / 번역 김동욱

▶ 2면에서 이어짐

“상황은 전에도 줄곧 나빴어요. 우리는 기본권도 보장받지 못합니다. 하지만 10월 7일 이후 상황은 더한층 악화됐어요.”

하지만 마우지는 탄압이 심해졌어도 서안 지구 팔레스타인인들이 여전히 저항할 방법을 찾고 있다고 전했다.

“이번이 예전과 다른 점 하나는, 이스라엘이 대단한 선전 기구를 동원하는 데도 여론전에서 이기지 못하고 있는 듯하다는 거예요.

“여기 서안 지구에서 팔레스타인인

들은 소식을 알리려고 무진장 애쓰고 있어요. 텔레그램 채팅방을 운영하며 이스라엘군과 정착민들의 공격을 기록하는 마을이 정말 많아요. 젊은 사람들은 틱톡 영상을 찍어요.

“팔레스타인인들의 저항도 이제 전보다 훨씬 좋은 매체를 갖고 있습니다. 소식을 알리고 이스라엘의 거짓말을 들춰 내려고 우리 모두 열심히 노력하고 있어요.”

출처 Sophie Squire, ‘Death and destruction in Gaza as west backs slaughter – This Christmas, Bethlehem will be silent’ (2023. 12. 12) / 번역 김준호

유엔난민기구 특별조사관이 말한다: “가자 지구는 여성과 아이들에게 지옥이다”

12월 14일 목요일에 유엔난민기구 ‘여성·소녀에 대한 폭력’ 특별조사관 림 알살렘은 가자 지구에서 활동하는 사람들이 겪는 “형언할 수 없는 고통과 공포를 표현할 단어가 더는 없다”고 말했다. 알살렘은 이렇게 말했다. “이 지옥에서 팔레스타인 여성·어린이로 살아간다는 것은, 인간성·존엄성·안전 등 여성·어린이에게 평시든 전시든 일반적으로 주어지는 배려를 모조리 박탈당했다는 뜻이다.”

이스라엘, 유엔 운영 학교에서 아이들 학살

이스라엘은 살던 곳에서 쫓겨난 민간인들이 피난처로 사용하는 학교를 폭격했다. 알자지라는 자발리아 난민촌 내 학교에서 여성들이 요리를 하던 중 폭탄이 떨어졌다고 보도했다. 이번 폭격으로 어린이아들도 희생됐을 수 있다. 이스라엘이 가자 지구 북부에서 쫓아낸 팔레스타인 피란민 가족들은 유엔구호사업기구(UNRWA)가 운영하는 학교가 “안전 지대”라는 말을 듣고 그곳으로 피신했다.

이스라엘군의 인질 오인 사살

하마스 저항에 공포를 느끼는 이스라엘군

김인식

지난주 금요일 이스라엘군은 가자시
타의 슈자이야 지역에서 자국민 인질
3명을 오인 사살했다.

2명은 현장에서 즉사했다. 나머지
1명은 총상을 입은 채 건물로 피신했다
가 다시 이스라엘군을 향해 나오다 다
시 총에 맞고 숨졌다.

인질들이 나온 건물은 이스라엘 군
인들로부터 10미터도 떨어져 있지 않
았다. 히브리어로 도움을 요청하는
소리가 들릴 거리였다. 게다가 인질
들은 상의를 벗은 채 옷으로 만든 백
기를 나뭇가지에 걸쳐 흔들고 있었
다.

그런데도 현장의 이스라엘 군인들은
이 상황을 하마스의 유인 작전으로 오
판하고 발포했던 것이다.

인질 사살은 이스라엘군이 저지르는
학살의 실체를 생생하게 보여 준다.

이스라엘군은 교전 규칙 위반 사고
라고 말했다.

그러나 인질 사살은 그동안 이스라
엘 군대가 닥치는 대로 학살하던 야만
행위와 맥을 같이한다. 다만 그 상대가
팔레스타인 민간인이 아니라 이스라엘
인질이었다는 점이 다를 뿐이다.

궁지

인질들이 숨진 슈자이야 지역은 하
마스와 이스라엘군이 격렬하게 전투
를 치르는 곳이다. 이스라엘군 대변인
다니엘 하가리는 “군이 자살 폭탄 테러
범을 비롯한 테러리스트들을 마주치는
지역”이라고 인정했다.

이스라엘군은 그동안 “하마스가 가
자 지구 북부 통제권을 상실했다”고 발
표해 왔는데, 실제 전황은 영 판판이다.

미국에 본부가 있는 ‘유대인 미국 국
가안보 연구소’(JINSA)의 야코브 아미
드로르(이스라엘군 퇴역 장성)는 이러
게 말했다. “[이스라엘군은] 아직 터널
에 대한 좋은 대응책을 찾지 못했다.”

이스라엘군은 최근 “4킬로미터 초대
형 하마스 터널”을 발견했다고 발표했
다. 그러나 새로운 발견이 아니라 이미
오래 전에 공개된 것이다. 이스라엘군
은 획기적 전과가 없다 보니 면피성 전
쟁 프로파간다를 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듯 하마스와 이스라엘군이 가자
지구 북부에서 격렬하게 전투를 치르



이스라엘 측 주장과 달리, 이스라엘군은 가자 북부에서 교전 중이다



이스라엘군에 사살된 인질들이 히브리어로 남긴
구조 요청 메시지

면서 거리가 “죽음의 미로”가 되고 있
다.

그래서 이스라엘 군인들은 하마스의
매복·기습 공격을 두려워한다.

이스라엘 수도 텔아비브에서는 인질
의 유족 등 수천 명이 “즉각 협상”을 요
구하며 네타냐후의 전시 내각을 압박
했다.

유엔의 인도주의적 휴전 결의안을
단칼에 거부하고 가자 지상전을 실행
하던 네타냐후는 결국 카타르가 중재
하는 인질 석방 협상 재개 논의를 노르
웨이 오슬로에서 시작했다.

10월 7일 직후 하마스의 선제 공격이
네타냐후를 이롭게 할 뿐이라는 견해
가 파다했지만, 네타냐후는 사실 궁지
에 몰리고 있다.

이스라엘군 저격수, 가자 성당에서 비무장 모녀 사살

이스라엘군 저격수가 가자 지구 가
톨릭 교회 성당에서 비무장 상태였던
모녀를 사살했다. 그 교회에는 가족과
환자, 장애인만이 있었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이것은 전쟁이
고 테러”라고 말했다.

이스라엘은 자신들이 벌이는 잔혹한
전쟁을 “정당방위”라고 주장한다. 이
주장을 합리화하려고 팔레스타인 투사
들을 “테러리스트”로 몰아세운다.

그러나 이스라엘군이 비무장 상태의
여성과 아이들을 죽이는 것은 “정당방
위”가 아니라 국가 테러일 뿐이다!

이스라엘군이 10월 7일부터 12월
18일까지 가자 지구에서 학살한 민간
인은 1만 9400여 명이다. 실종자 최소
6000여 명은 제외한 수치다. 부상자는
5만 2000여 명에 이른다.

전염병이 확산되어 가자 지구에 ‘안
아픈 사람이 없다’고 할 정도다. 그러자
이스라엘군은 오히려 병원들을 집요하
게 공격하고 있다. 가자 지구 북부의 카
말 아드완 병원 분만실에 입원해 있던
두 여성을 죽였고, 그 사실을 공개했다.
이스라엘은 서안 지구에서도 군사 활동

을 확대했다. 이스라엘 군대와 정착자들
은 팔레스타인인들을 죽이고, 잡아 가두
고, 올리브 농장을 쑥대밭으로 만들었다.

미국은 그런 참극을 외면하고 유엔
안보리에서 가자 지구의 인도적 휴전
제안을 반대했다(12월 8일).

이스라엘은 더욱 기고만장해졌고,
바이든의 위선적인 민간인 보호 “요청”
은 비웃음거리가 됐다.

그러자 가자의 재앙이 역내 불안정을
심화시킬까 봐 우려해 이집트와 이슬람
협력기구(OIC) 의장국 모리타니 등은
12월 12일 유엔 긴급 총회 개최를 요청
했다. 그 자리에서 인도적 휴전 결의안
이 채택됐다. 153개국이 찬성했고, 미국
과 이스라엘 등 10개국만이 반대했다.

미국과 이스라엘이 국제적으로 고립
돼 있음을 보여 줬지만 법적 구속력은
없는 결의안이었다. ‘국제 사회’에 기대
를 거는 것이 무망한 까닭이다.

네타냐후는 “국제 사회의 [휴전] 압
력에 굴복하지 않겠다”고 했다. 심지어
서안 지구를 통치하는 “팔레스타인 자
치정부와의 전쟁 가능성에 대비하고
있다”고도 말했다.

이렇게 생각한다

하마스의 저항을 좌고우면 말고 지지해야 한다

팔레스타인인들은 이스라엘의 점령에 맞서 자신들이 원하는 어떤 수단으로든 저항할 권리가 있다.

팔레스타인인들의 민족 해방은 중동에서, 또 세계적으로 서방 제국주의에 타격을 줄 것이다.

서방 세계(와 친서방국) 노동계급 사람들을 팔레스타인 지지로 끌어들이면, 그 지배자들이 퍼뜨리는 애국주의와 인종차별 관념들도 약화될 것이다.

팔레스타인 저항 운동을 지지할지 말지가 그 저항을 어떤 조직이 이끄느냐에 따라 달라지지 않아야 한다. 물론 건설적이고 동지적인 비판이라면 혁명적 좌파는 제기할 자격이 충분하다.

2000년대 이래로 이스라엘에 맞선 저항을 주도하는 조직은 무장 저항 조직을 이끄는 이슬람주의 정당 하마스였다. 어떤 자들은 이를 이유로 우리가 이슬람주의와 “테러”를 옹호한다고 비난한다.

하마스는 팔레스타인해방기구(PLO) 지도부가 ‘평화 프로세스’라는 사기극을 받아들이고 단일 국가 수립 목표를 포기한

이후 성장했다. 하마스와 팔레스타인인들에게는 이스라엘의 점령에 맞선 투쟁을 이어갈 권리가 마땅히 있다.

하마스와 유사하게 레바논의 헤즈볼라도 사회주의 세력이 아니다. 하지만 2006년 이스라엘에 패배를 안겨 제국주의에 큰 타격을 준 민족 해방 투쟁 세력이다.

가능성

팔레스타인인들의 저항은 이스라엘을 약화시켜, 이스라엘을 후원하는 미국을(그리고 미국을 후원하는 한국 정부를) 두려움에 싸이게 만든다. 팔레스타인인들의 저항은 또한 중동 전역의 저항에 거둬 영감을 줬다. 이런 저항은 더 폭넓고 급진적인, 심지어 혁명적인 변화의 가능성을 열어 준다.

현재 저항을 이끌고 있는 단체에 대한 이견이 있다는 이유로 이리저리 살피며 저항을 흔쾌히 지지하지 않는 것은 제국주의자들과 매스 미디어의 거짓말에 쉽사리 넘어갈 준비가 돼 있는 셈이다.

‘한 국가 방안’이 유일한 해법이다

이스라엘 국가와 팔레스타인 국가가 나란히 공존한다는 “두 국가 방안”은 가능하지도, 바람직하지도 않다.

1993년 오슬로협정은 평화 협정의 결과 장차 팔레스타인 국가가 수립될 것이라고 했다. 그 팔레스타인 국가는 이스라엘이 1967년에 차지한 “점령지”인 동(東)예루살렘, 서안 지구, 가자 지구에 기반을 둘 것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이스라엘 국가 전체는 점령한 팔레스타인 땅에 기반을 두고 있고, 속속들이 인종차별이 배어 있다. “두 국가 방안”은 1948년 살던 곳에서 추방된 팔레스타인인들이 귀환할 권리나

아랍인들에 대한 인종차별에 관해서는 내놓는 게 없다.

이스라엘은 자국에 종속된 팔레스타인 소(小)국가에만 공존을 허용할 것이다. 그러나 심지어 그런 소국가의 기반마저 허물고 있다.

이스라엘은 그나마 남은 서안 지구 팔레스타인인들의 땅도 정착촌을 건설하며 계속 강탈하고 있다.

이것이 이스라엘의 인종차별적 식민 프로젝트의 논리다. 유일한 해법은 아랍인과 유대인이 동등한 민주적 권리를 누리는 단일 팔레스타인 국가를 수립하는 것이다.



가자시티에서 이스라엘 군용 차량 잔해를 밟고 있는 하마스 전사

이스라엘군은 사상자 수를 축소 발표하고 있다

10월 말 지상군 작전이 본격화된 뒤 지금까지 전투에서 사망한 이스라엘 군인은 110명이다.

2014년 가자 지구에서 50일 동안 지상전을 벌였을 때 이스라엘군 전사자는 66명이었다.

이스라엘군은 12월 10일 현재 부상자가 1593명이라고 발표했다. 이 중 559명은 지상전 개시 이후 부상당했고, 255명은 중상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이스라엘 영자 일간지 <하레츠> 기자가 해당 병원들의 진료 기록을 직접 취재한 결과, 군의 발표 수치는 실

제의 15퍼센트 수준이었다. 실제 부상자는 1만 명을 넘을 거라는 얘기다.

앞선 전사자 수도 이스라엘군이 축소 발표했을 개연성이 크다.

이스라엘군은 병원에 입원해 있는 부상병 정보를 공개하지 말라고 의사들을 압박했다.

이스라엘군의 사상자 수를 정확하게 알 수가 없다.

그러나 이스라엘군이 팔레스타인인들을 계속 학살하는 가운데, 이스라엘 군도 무시하지 못할 정도의 피해를 보고 있다는 것은 분명하다.

이스라엘의 더러운 심리전

이스라엘 영자 일간지 <하레츠>는 이스라엘군이 팔레스타인인을 상대로 심리전을 펴고 있다고 폭로했다.

이스라엘군의 심리전 부대가 “적과 외국인”을 상대로 하는 텔레그램 채널을 운영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 텔레그램 채널은 “가자 지구 현지 독점 콘텐츠”임을 부각한다. 그러면서 가자 지구에서 살해된 팔레스타인인들의 사진과 영상들을 포스팅했다.

10월 11일 포스팅은 이렇다. “저들의 어머니를 불태우고 있다. ... 당신은 우리가 입수한 영상을 믿고 싶지 않을 것이다! 당신은 저들의 뼈가 으스러지는 소리를 들을 수 있다.”

팔레스타인인 구급자와 무장 투사의 시체 사진에는 이렇게 캡션을 달았다. “바퀴벌레를 몰살시키고 있다. ... 하마스 쥐새끼를 몰살시키고 있다. ... 이 아름다운 것을 공유하라.”

또 다른 영상은 이스라엘군 차량이 팔레스타인인의 시신을 깔고 지나가는 장면이 나온다.

이스라엘군은채널운영사실을부인했다.

그러나 <하레츠>는 이스라엘군이 오래 전부터 적(가자 지구, 이란, 레바논 등)을 상대로 심리전을 벌여 왔다고 지적했다. 다만, 이스라엘군이 관여했다는 증거가 남지 않도록 가짜 계정을 사용해 비밀리에 수행했다는 것이다.

재한 팔레스타인인 유학생이 말한다

베들레헴에서 자라며 겪은 이스라엘의 탄압

나리만 팔레스타인 유학생

“왜 팔레스타인일까요?”

미국 대통령 조 바이든은 “이스라엘이 없었다면 우리는 또 다른 이스라엘을 만들어야 했을 것이고, 우리가 없었다면 중국과 러시아가 그곳에 있었을 것”이라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이 발언은 팔레스타인 쟁점이 순전히 정치적·경제적 문제라는 것을 보여 줍니다.

팔레스타인은 작은 면적이지만 온화한 기후, 다양한 지형, 유전·가스전·천연소금 등 풍부한 자원, 지중해·홍해·요르단강 모두와 인접하고 수에즈 운하와 가깝다는 점 등 많은 요인으로 인해 모두가 탐내는 지역이 됐습니다.

1948년 팔레스타인에서 벌어진 일[나크바]은 유엔의 실패를 보여 주는 한 과정의 시작,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닙니다.

팔레스타인 점령은 타 국가와 민족을 지배하는 새로운 방식입니다. 강대국들이 마음대로 상황을 조작하는 편향된 수단이 동원됐는데, 유엔 결정은 대부분 약소국이나, 미국과 그 동맹국이 싫어하는 국가에만 적용되지 그 반대는 아니라는 점에서 두드러집니다.

[안보리 상임이사국] 5개국에게만 어떤 결의안이든 부결시킬 수 있는 거부권을 주는 것, 심지어 다른 모든 국가가 동의하더라도 그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과연 합리적일까요?

오늘로 협정은 팔레스타인인들과 점령 국가 사이에 맺어진 최초의 공식적 합의입니다.

오늘로 협정에서 팔레스타인해방기구(PLO)는 팔레스타인인들이 자기네 땅이라 여기는 역사적 팔레스타인 지역 77퍼센트의 통제권을 포기했습니다.

물론 오늘로 협정의 목적은 역내 평화를 모색하는 것이지만, 이마저도 이스라엘이 아니라 미국이 주도한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건국 이래로 팔레스타인인들과는 그 어떤 진지한 협상도 하려 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의 역대 총리들은 팔레스타인인들을 권리를 가진 인간으로 보지 않고 인간 이하의 존재로 본다고 여러 차례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여러분이 어느 날 아침에 일어났는데 자기 과수원이 사라지고 그 자리에 8미터 높이의 시멘트 장벽이 들어서서 태양조차 볼 수 없도록 막고 있다면, 집



나리만 씨가 다닌 학교 바로 옆에 세워진 분리 장벽. 초소에서 언제든지 운동장으로 공격을 할 수 있다

의 절반(장벽 건설을 위해 진작에 통째로 철거되지 않았다면)을 버리고 떠나야 한다면, 어떤 기분이 들까요? 여러분의 동네가 10퍼센트만 남아 있다는 것을 두 눈으로 보게 된다면 어떤 감정이 생길까요?

그 벽에는 감시탑이 있고, 저격수들이 배치돼 여러분을 사살하거나 짐승처럼 끌고 가려고 총을 겨누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쩌면 자신들의 최신 화학무기를 여러분들에게 실험하려 들 수도 있습니다.

바로 그런 일이 제가 다니던 학교에서 벌어졌습니다. 전에 학교 앞에는 넓은 들판이 있었지만 빼앗겼고, 중간에 거대한 장벽과 감시탑이 생겨 가로막혔습니다. 점령군은 우리를 향해 최루가스를 사용했습니다.

최루 가스

그 탓에 우리는 다른 편에 있던 남학교와 우리 여학교를 바꿔야 했습니다. 남자아이들이 탈출구를 더 잘 찾을 것이라는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3학년짜리, 그러니까 7살 아이들이 탈출하는 법과 난민촌 골목길로 빠져나와 무사히 귀가하는 법을 훈련받는다는 사실을 여러분은 상상이나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은 학교에서 선생님이 혹시 최루탄을 건드리라고 양파나 깨끗한 천, 향수를 잘 가져왔는지 준비물 검사를 한 적이 있습니까?

이건 제가 대학 다닐 때의 일인데, 이스라엘군이 훈련을 하던 곳 인근 건물에서 수업을 받던 도중에 강의를 하던 선생님께서 그냥 창문을 닫고 수업을 계속하자고 하신 적도 있습니다.

우리는 늘 주머니에 알코올이나 석

류, 양파 따위를 갖고 다녔는데 최루가스를 건드리기 위한 것들입니다. 그날 그들이 건물을 습격해서 최루가스를 구석구석 퍼부었어요.

선생님께서서는 우리더러 화장실로 가라고 하셨지만, 학교 내 모든 화장실은 원래 6인용으로 지어졌습니다. 그러나 상황이 상황인지라 수십 명이 그 안에 몰렸고 아주 큰 혼란이 일어났습니다.

저는 실수로 그만 엘리베이터를 탔는데 문이 닫히면서 최루가스가 들어왔습니다. 엘리베이터가 마침내 움직였을 때 저는 앞을 볼 수가 없었고 마치 의식을 잃는 것 같았습니다.

사람들이 저를 부축하며 “얼른 알코올과 비상약을 가져와”라고 말했지만 누군가 “아무것도 없어. 지금 수백 명이 가스 흡입 상태야” 하고 말했습니다.

후에 저는 누군가 “그녀를 영안실로 데려가, 거기에는 뭔가 있을지도 몰라” 하고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누군가 여러분을 두고 “영안실로 데려가” 하고 말하는 것을 들으면 어떤 기분이 들겠어요?

저는 제가 죽은 줄 알았지만 다행히도 죽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구급약과 깨끗한 천, 알코올을 충분히 구해다 줍니다. 여러분은 이후 제가 귀가했을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아닙니다. 저는 다음 강의를 들었습니다. 제가 다니던 대학에서는 흔한 일상이었습니다.

어쩌면 처음에 말씀드렸어야 했는데, 저는 난민 3세대에 속합니다. 제 가족은 1948년에 쫓겨난 뒤 오랜 시간 난민촌에서 살았습니다. 그 뒤 제 할아버지, 아버지, 삼촌들이 땅을 사서 집을 지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 가족이 머물렀던 도시는 베들레헴,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도시죠. 베들레헴은 팔레스타인에 속합니다.

저는 우리의 분쟁을, 무슬림과 유대인 사이의 종교적 분쟁이라고 표현하는 경우가 광범하다는 것을 알고는 슬펐는데, 사실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기독교인들도 무슬림처럼 탄압을 겪습니다. 기독교 교회와 그 신도들, 그 지도자들을 불태우고 겨냥하는 탄압 말입니다. 심지어 이스라엘 의회 내 시온주의자들은 예루살렘에서 기독교인들이 종교 의식을 치르지 못하도록 막으려 하기도 했습니다. 현 상황은 서방 언론이 그리는 것과 다르다는 것, 종교 분쟁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사람들에게 알려야 합니다.

아직까지도 기억이 생생하고 가장 무서웠던 것은 그들이 제 할머니 집에 침입했을 때였어요. 비록 그때는 무서운 티를 안 났지만 말이에요.

병사들 중 상급자가 차에서 내려 저와 할머니, 여동생, 사촌의 딸을 향해 총을 겨눴습니다. 그는 제게 사촌의 아들이 어디로 갔는지 말하라고 했습니다. 저는 그들에게 모른다고 했고 할머니께서는 제가 봉변을 당하지 않도록 자기 품으로 끌어당기셨습니다.

저들은 총으로 우리를 위협했습니다. 저는 그때 울지 않았지만 제 여동생과 사촌의 딸은 울고 있던 것을 기억합니다.

제 심장은 지금까지도 열려 있습니다. 저는 아직도 생각합니다. ‘만약 그들이 강요했다면 내가 결국 입을 열었을까?’ 저는 사실 그[사촌의 아들]가 어디에 있는지 알았지만 모른다고 거짓말을 했던 것입니다. 저들은 모든 집을 수색했고 심지어 투항하지 않으면 집들을 부숴버리겠다고 대형 스피커를 통해 협박하기도 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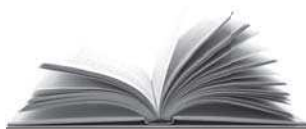
저는 한국에서 지내는 것이 행복하지만, 한국 정부가 이스라엘을 지지하고 팔레스타인에 맞서 행동하는 것에 비통함을 느낍니다.

점령과 인종 청소는 직면해서 자유를 갈구하는 사람들은 그런 행동을 지지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한국이, 지금 고통받고 있는 팔레스타인인들의 편에 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고통은 과거 한국이 일본 식민 지배로 겪은 고통과 다르지 않습니다.

번역 박이랑·김종환

축약되지 않은 전문은 본지 웹사이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서평 | 《팔레스타인 실험실》

테러·무기·고문 수출하는 이스라엘

이 책에 따르면 팔레스타인은 이스라엘이 글로벌 군사 패권국을 대신해서 무기 장비를 테스트하는 실험장이다. 저자는 이스라엘의 대표적인 무기 제조 기업들을 폭로한다.

이스라엘 최대 무기 제조업체 엘빗은 이스라엘 탱크와 항공기에 쓰이는 필수 장비 공급업체로서 드론, 지상 감시 시스템, 최첨단 살상 무기들을 만든다.

이스라엘의 보안 회사 NSO는 팔레스타인인들의 휴대전화를 해킹하는 데에 '페가수스'라는 소프트웨어를 사용한다.

애니비전(AnyVision)도 팔레스타인인들을 감시하는 주요 업체 중 하나다. 이 업체의 감시 카메라로 이스라엘 군대는 요르단강 서안 지역에서 팔레스타인인들의 정보를 추적한다. 이 회사는 구글과 손잡고 안면 인식 기술을 개발했다. 일명 구글 아요시(Google Ayosh)라는 프로젝트로 팔레스타인인에 관한 정보를 모았다. 저자는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과 이스라엘 군수 기업들 간의 공생 관계를 자세하게 폭로한다.

최근 이스라엘은 감시 정찰 기술을 활용해서 아랍의 독재 정권들과의 협력에 나섰다.

2020년 8월 트럼프가 주도한 아브라함 협정으로 아랍에미리트, 바레인 등이 이스라엘과 외교 관계를 회복했을 때 '페가수스' 수출은 핵심 매개체였다. 아랍에미리트는 '페가수스'를 사용해서 견제 세력(특히 이란)의 영향력 확대를 막으려 했다. 남수단의 정보기관은 이스라엘 기업한테서 통신 도청 기술을 사들인다.

이스라엘 군대 및 정보기관과 민간 군수 기업들의 합작은 팔레스타인에 머무르지 않는다. 이스라엘의 드론 기술은 팔레스타인인뿐 아니라 지중해 난민 감시에도 이용됐다.

유럽연합은 이스라엘의 기술을 활용해서 난민을 차단한다. 2015년 시리아 난민들이 유럽으로 들어가려 하고 이라크·아프가니스탄 전쟁으로 이민자가 대거 유럽을 향해 나가려 하자 유럽 연합은 이스라엘의 주요 방산 기업과 손을 잡았다. 특히 엘빗의 헤르메스 드론과 IAI의 헤론 드론은 2008년 이래 이스라엘이 가자를 상대로 벌인 전쟁



이스라엘의 폭격으로 폐허가 된 가자 지구



팔레스타인 실험실 — 이스라엘은 어떻게 점령 기술을 세계 곳곳에 수출하고 있는가

앤서니 로엔스틴 지음, 유강은 옮김.
소소의책, 356쪽, 23,000원

에서 사용된 제품이다.

저자에 따르면 이스라엘과 그리스의 군사 협력은 각별하다. 난민들이 그리스의 섬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막는 데서 그리스는 이스라엘과 군사적 협력을 아끼지 않고 있다.

이 책은 네타냐후가 얼마나 악랄하게 난민을 배척하는지도 폭로한다. 지난 10년간 아프리카 에리트레아와 수단에서 박해를 피해 도망친 난민 수만 명이 이스라엘에서 피난처를 찾으려 하자 네타냐후는 이를 막기 위해 억압적인 아프리카 국가들을 매수해서 비밀리에 교섭했다. 그리고는 아프리카 난민들을 독재국가가 운영하는 용병 훈련소로 보내려 했다.

이스라엘은 남미 대륙의 군사 독재 정권 유지에도 관여했다. 이스라엘은 1973년 칠레의 군부 쿠데타 이후 피노체트 군사 정권과 돈독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무기를 대거 공급했다. 1980년 칠레 주재 미국 대사관이 이를 인정했다. 이스라엘과 칠레가 교환한 서신이 1만 9000건에 달했다.

대륙을 넘어

유독 이스라엘 정부가 칠레 군부 독재자들과 그렇게 사이가 좋았던 데에는 나름 이유가 있었다. 칠레에는 아랍 세계 바깥에서 가장 큰 규모의 팔레스타인 공동체가 있었다! 이스라엘 시온주의자들은 피노체트 정부가 팔레스타인 공동체를 억압하기를 바랐다.

이스라엘은 나치 인사들을 반갑게 맞이한 아르헨티나와의 동맹에도 열중했다. 1976년부터 1983년까지 아르헨티나 군사 독재 정부의 탄압으로 유대인 3만 명이 살해되거나 실종됐지만 이스라엘 시온주의자들은 침묵으로 일관했다.

이스라엘의 수출 품목에는 고문 기법도 있었다. 이스라엘 군대는 레바논 우익 민병대에 무기뿐 아니라 고문 기법도 전수했다.

군사 기술에 열을 올리는 것은 이스라엘 건국 때부터 아로새겨진 DNA와도 같다. 이스라엘 초대 총리 벤구리온은 건국 초기에 1952년 서독한테서 받은

거액의 배상금을 무기 부문에 투자했다.

이 책은 이스라엘과 미국의 공생 관계를 꼬집는다. 미국 국가안보국은 그 내부 고발자에 따르면 팔레스타인계 미국인들의 방대한 양의 이메일과 전화 통화를 이스라엘과 공유한다. 한편, 미국의 '대테러전쟁'으로 이스라엘의 사이버 보안, 감시 업체가 큰 호황을 맞기도 했다.

붓물 터지는 풍부한 사례들은 이 책의 장점이다. 이 책을 읽으면 이스라엘이야말로 테러리스트 국가라는 걸 더 분명히 알게 된다. 색인을 통해 이스라엘 군수 기업들의 리스트도 살펴볼 수 있다.

다만 미국과 이스라엘이 공생하는 이유에 관한 설명은 부족하다. 이스라엘이 미국과 유럽연합의 중동 전초 기지 구실을 한다는 지정학적 이해관계를 염두에 두면서 읽는다면 더욱 유익하겠다.

또, 이 책은 이스라엘의 촘촘한 감시망도 팔레스타인인들의 저항 의지를 꺾지 못했다는 사실을 누락한다. 이스라엘이 자신을 폭로하는 사진과 글귀를 삭제하는 소프트웨어를 아무리 개발, 제공해 SNS 등에서 가동되도록 해도 팔레스타인 연대는 확산되고 있다.

그럼에도 이 책은 충분히 읽을 가치가 있다. 지난 10년간 한국의 대이스라엘 무기 수출액이 세 배 가까이 늘었다. 이 책이 한국어로 빨리 번역된 것이 각별히 반가운 이유 중 하나다.

김어진

유대교 경전을 이용한 시온주의의 거짓말

구약성경

최일봉

이 기사는 같은 제목으로
12월 13일에 열린 노동자
연대 온라인 토론회(영상
보기)의 발제문이다.



오늘은 이스라엘 국가가 어떻게 유대교와 유대교 경전, 즉 히브리어 성경을 이용해 전 세계의 1500만 유대인과 수억 명의 보수적 그리스도인들에게 환심을 샀는지를 보려 합니다. 히브리어 성경은 유대인과 그리스도인이 공유하는 경전입니다. 유대교 측은 타나크라고 부르고, 그리스도교 측은 구약성경이라고 부릅니다. 저는 그냥 여러분들에게 익숙한 말인 구약성경이라고 부르겠습니다.

유대교는 기원전 6세기경 예루살렘이 수도인 유다라는 나라에서 시작된 종교입니다. 그러므로 유대교라고 부르는 게 정확합니다. 그렇지만 이것도 여러분들에게 익숙한 말인 유대교라고 부르겠습니다. 또한 유대인이 더 정확한 말이지만 그냥 유대인이라고 하겠습니다. 사실 유대는 유다의 로마식 지명입니다.

시온주의자들과 이스라엘 민족사학은 팔레스타인을 “이스라엘의 땅”이라고 부릅니다. 이 주장을 정당화하기 위해 시온주의자들은 소위 “고대 이스라엘”과 “유배” 또는 “유랑”이라는 개념들을 이용합니다.

그들은 “고대 이스라엘”이 기원전 10세기 지중해 남동부 연안 지역 일대에 광대하게 존재했던 막강한 강대국이었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그후 분열과 주변 열강의 침략을 겪고, 서기 70년 로마제국에 맞선 해방 전쟁에 참패한 결과 세계 곳곳으로 “유배”를 가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역사가 아니라 신화입니다. 시온주의는 유대인 민족주의인데, 모든 민족주의가 그렇듯 훌륭한 과거와 그것의 회복 이야기를 지어 낸 것입니다.

고대 이스라엘

먼저 “고대 이스라엘”에 대해 얘기하겠습니다. 시온주의자들은 구약성경의 다윗과 솔로몬 그리고 그들의 나라 얘기를 엄청나게 부풀려서 유대인 민족주의의 신화로 삼습니다.

여러분은 아마도 출애굽, 즉 이집트 탈출과 모세, 여호수아 얘기를 들어 보셨을 겁니다. 구약성경은 유대인의 조상들이 아주 오래전 이집트에서 노예로

다윗 왕국의 고고학적 유적은 당시 예루살렘이 마을 수준의 작은 ‘도시’였음을 보여 준다

살다가 기원전 13세기에 모세의 지도로 이집트를 탈출해 광야를 헤매다가 마침내 여호수아의 지도로 “젓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 가나안, 즉 지중해 남동부 연안 지역을 정복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원전 10세기 초반과 중반에는 다윗과 솔로몬의 통일왕국과 태평성대가 펼쳐졌다고 합니다. 특히, 솔로몬은 예루살렘에 거대한 성전을 지어 더 없는 영광을 과시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고고학자들은 1990년대에 아주 고통스러운 진실을 마주해야 했습니다. 아브라함은 물론이고 모세와 여호수아도 실존 인물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과 솔로몬도 존재하지 않았거나, 아니면 기껏해야 다신교적 토속 신앙을 가진 부족장들에 불과했다는 것입니다.

정직한 이스라엘 고고학자 제에브 헤르조그가 1999년 10월 이스라엘의 <하아레츠> 신문에 발행하는 잡지에 기고

한 기사(10/29)에서 인용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인들은 결코 이집트에 산 적이 없고, 광야를 헤매지도 않았고, 군사적으로 그 땅[가나안]을 정복하지도 않았고, 그 땅을 이스라엘의 12지파[부족]에게 물려주지도 않았다. 아마도 받아들이기 훨씬 더 어려운 사실은 성경에 지중해 남동부 연안 지역 전체에 걸친 제국으로 묘사된 다윗과 솔로몬의 장엄하다는 왕국이 기껏해야 소규모 부족 국가였다는 것일 것이다.”

이스라엘 고고학자들은 또한 솔로몬 시대에 장대하게 건축됐다는 성전이 실제로는 몇백 년 뒤에야 비로소 유다 나라에서 소규모로 건축됐다는 사실도 알게 됐습니다.

실제의 고대 이스라엘

지금까지 시온주의자들이 찬미하고 자기네가 계승했다고 주장하는 소위 “고대 이스라엘”의 역사적 실체가 시온

주의자들의 주장처럼 다윗과 솔로몬의 찬란한 통일왕국이 아니라는 사실을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고대에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존재하기는 했습니다. 그 나라는 기원전 8세기경에 등장했는데, 시온주의자들의 주장과 달리 유일신 예배에 충실한 사회가 아니라 다신교적 토속 신앙이 지배했던 사회였습니다. 심계명의 제1계명이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네게 두지 말라”인데, 이는 다른 신들의 존재를 상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실제 고대 이스라엘의 수도는 사마리아였습니다. 그래서 때때로 성경에서는 이 나라를 사마리아라고도 부릅니다.

그런데 사마리아와 유다는 극도로 사이가 나빴습니다. 유다는 제가 앞서 언급했듯이 예루살렘이 수도이고 유대교가 시작된 나라입니다. 사마리아와 유다는 종종 전쟁도 벌였습니다. 신약성경에 루카복음서라는 문서가 포함되어 있는데, 루카복음서에 그 유명한 ‘착한 사마리아인’ 비유가 있습니다. 강도를 당해 길에 쓰러져 있는 사람을 구해 준 사마리아인 얘기입니다. 자신들을 경멸하는 유대 사람인데도 구해 준 것입니다. 그 비유는 예로부터 유대인이 사마리아인에 대해 가졌던 매우 부정적인 편견을 역사적 맥락으로 반영합니다.

이처럼 고대 유대인들은 실제의 고대 이스라엘을 유대적이지 않다고 여겼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시온주의가 스스로 고대 이스라엘의 적통을 자처하는 것은 건강부회입니다.



제에브 헤르조그
이스라엘 고고학자, 텔아비브대 교수

“
성경에 지중해 남동부 연안의
제국으로 묘사된
다윗과 솔로몬의 왕국은
기껏해야 소규모 부족 국가였다.
”

출처: ‘Deconstructing the walls of Jericho (1999)’



1930년 아랍 현악기 까는 연주로 명성을 쌓은 이라크 유대인 유수프 자오루르
이라크에 남은 유대인들은 아랍인들과 잘 어울려 살았다

(좌) 고대 이스라엘 왕국(사마리아)과 유다 왕국(예루살렘)은 사이가 좋지 않았고, 유다 사람들은 이스라엘이 유대적이지 않다고 봤다

(우) “바빌론 유수”는 유대인 전체가 아니라 엘리트층이 끌려간 사건인데다, 유배 중이던 사람 대다수는 고향으로 돌아가지 않았다

사마리아와 유다의 불화와 반목에는 주변 강대국과의 지정학적 관계가 상당 부분 작용했습니다. 사마리아는 신아시리아제국 - 그냥 아시리아라고 부르겠습니다 - 과 감히 맞서려고 했던 반면 유다는 스스로 아시리아의 속국이 되기 때문입니다. 결국 사마리아는 기원전 720년경 아시리아에 의해 멸망했습니다.

그러자 많은 사마리아인들이 유다 나라로 피난 와서 난민으로 살았습니다. 그때 그들이 가져온 문서들 중에는 유다의 전통과 경쟁하거나 심지어 다윗 가문에 적대적인 내용들도 포함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구약성경에 서로 불일치하고 심지어 다윗 가문에 불리한 내용들도 포함돼 있는 것입니다. 시온주의자들은 이런 부분들을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슬쩍 넘어갑니다.

유다도 약 130년 뒤인 기원전 586년 주변 제국에 의해 멸망당합니다. 신바빌로니아제국 - 그냥 바빌로니아라고 부르겠습니다 - 이 침략자였습니다.

패망의 결과로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고, 유다의 엘리트층 사람들은 바빌론으로 끌려가 억류됩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이 고등학교 세계사 시간에 배우셨을 바빌론 유수입니다. 바빌론은 당시 바빌로니아의 수도로, 오늘날 이라크의 바그다드 부근입니다.

바빌론 유배

바빌로니아의 예루살렘 파괴가 유대인 식자층 사람들의 마음에 어찌나 지워지지 않는 강렬한 인상을 남겼던지 그 사건은 구약성경 전반에 걸쳐서 유대인의 과거에서 결정적 순간으로 여러 차례 언급됩니다.

그러나 시온주의의 주장과 달리 실제 역사에서는 유다 사람 모두가 아니라 그 엘리트층 사람들이 바빌론으로 끌려갔습니다.

그런데 바빌로니아도 인접 강대국에 의해 멸망했습니다. 기원전 539년 페

르시아에 의해 바빌로니아가 패망하자, 바빌론에 유배 중이던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도 된다는 페르시아의 허락을 받았습니다. 허락한 왕은 키로스 2세였는데, 성경에는 고레스로 표기돼 나옵니다.

바빌론에서 귀환한 유다 지도층은 성전 재건축과 함께 종교적 지도를 허용 받았습니다. 하지만 정치적으로 유다는 독자적 국가가 아니라 페르시아의 한 속주가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유대교가 단순한 페르시아 종교가 됐던 것은 아닙니다. 페르시아는 제관 자리를 확고하게 틀어쥐어 유대인들의 성전과 희생제사를 통제했지만 유대인들의 다른 형식의 신앙 생활까지 지배하지는 못했습니다. 덕분에 유대교는 다양성을 발전시킬 수 있었고, 그 가운데 메시아주의적 종파들 중 하나는 후대에 그리스도교로 발전할 수 있었습니다.

시온주의의 주장과 상충하는 부분은

또 있습니다. 바빌론 “유배” 중이던 사람들은 대다수가 고향으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바빌론 거주 유대인 중 많은 사람들은 그냥 바빌론에 눌러 살았고, 그러지 않은 사람들도 지중해 남동부 연안 지역 곳곳으로 이주해 가서 살았습니다.

특히, 바빌론에 계속 산 유대인들은 아주 잘 지냈고, 후대에 팔레스타인 탈무드보다 훨씬 우수한 바빌로니아 탈무드를 만들어 냈습니다.

현대에 이르기까지 이들 이라크 유대인들은 실로 찬란한 문화적·지적 업적을 남겼습니다. 이라크 최고의 음악가들 중 3분의 1이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들은 이웃 아랍인들과 잘 지내고 있었으므로 당연히 시온주의를 반대했습니다.

시온주의의 거짓말과 달리, 근대 이후 유대인들은 이라크에서처럼 다른 나라 대부분에서도 이웃 주민들과 잘 어울려서 잘 살았습니다.

디아스포라

바빌로니아의 침략 이후 유대인들은 유다 나라에서만 살지 않고 지중해 일대에 걸쳐 흩어져서 살았습니다. 디아스포라라는 말이 바로 여기에서 비롯했습니다. 디아스포라는 흩어져 사는 사

▶ 10면으로 이어짐

현 팔레스타인 저항의 쟁점들을 다룬

노동자연대 TV 영상 모음



온라인 토론회 영상,
팔레스타인 연대 집회의 열기를 느낄 수 있는
현장 영상들을 만나 보세요!



bit.ly/477esMy

팔레스타인의 저항을 아는 데 도움이 될 책

강탈국가 이스라엘 - 팔레스타인 강탈의 역사
존 로즈 지음, 이정구 옮김, 책갈피, 184쪽, 9,000원

팔레스타인의 저항 - 이스라엘과 제국주의에 맞서 해방은 어떻게 가능한가
필립 마플릿 지음, 이정구 옮김, 책갈피, 440쪽, 20,000원

팔레스타인 비극사 - 1948, 이스라엘의 탄생과 종족청소
일란 파페 지음, 유강은 옮김, 열린책들, 568쪽, 25,000원 (절판)

팔레스타인 100년 전쟁 - 정착민 식민주의와 저항의 역사, 1917-2017
라시드 할라디 지음, 유강은 옮김, 열린책들, 448쪽, 25,000원



▶ 9면에서 이어짐

람들이라는 뜻입니다.

디아스포라 유대인은 페르시아 시대
와 특히 알렉산드로스 대왕 및 그 후계
자들의 시대를 거치면서 팔레스타인 거
주 유대인보다 훨씬 많아졌습니다.

서기 1세기경 유대인 인구는 약 400만 명가량 됐습니다. 로마제국 전체 인구 6000만 명의 7퍼센트를 차지했습니다. 당시 예루살렘 인구는 학자들에 따라 겨우 2만 명에서 4만 명 사이로 추산합니다. 팔레스타인보다 팔레스타인 바깥에 사는 유대인이 훨씬 많았습니다. 팔레스타인 전체의 유대인이라 해 봤자 이집트 거주 유대인의 절반도 못 되었습니다.

시온주의자들은 서기 70년 로마제국 군대가 유대인들을 모두 팔레스타인에서 추방해 유대인들은 이후 거의 1900년간 유랑 생활, 유배살이를 하다가 마침내 이스라엘 국가를 수립했다고 주장합니다. 이게 바로 소위 “유배” 담론입니다. “추방”이라고도 하고 “유랑”이라고도 합니다.

과거의 찬란한 영광과 더할 나위 없이 대비되는 피해자 코스프레로 세계인의 동정을 받기에 안성맞춤입니다. 그러나 많은 피해자 코스프레가 그렇듯이 엄청나게 과장돼 있습니다.

예루살렘의 유대인들이 서기 66년에 로마제국에 맞서 해방 전쟁을 벌였다가 서기 70년 참패하고 많은 유대인들이 학살당하거나 예루살렘에서 추방당한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팔레스타인 지역 전체의 유대인이 아니라 예루살렘과 근교에 살던 유대인들이 추방된 것이고, 이들의 비율은 당시 로마제국 전체의 유대인 가운데 많아야 1퍼센트밖에 안 되었습니다. 제가 앞에서 말했듯이, 예루살렘 파괴 전 이미 여러 세기에 걸쳐 유대인들은 디아스포라로 살았습니다. 특히 알렉산드리아와 바빌론이라는 대도시에는 아주 많은 유대인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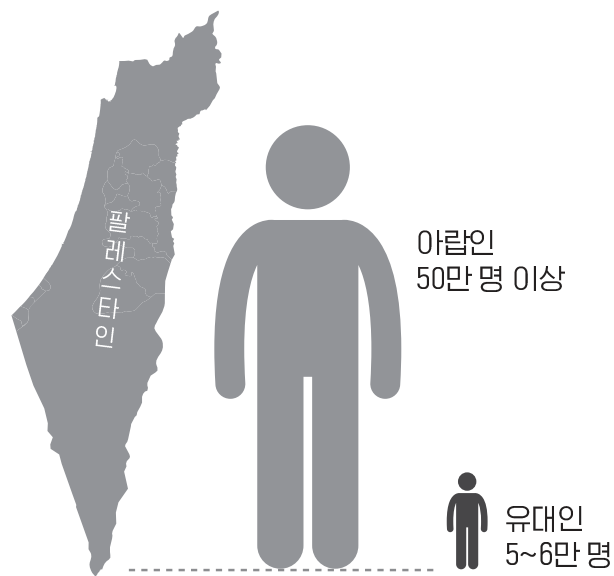
로마제국에 의한 예루살렘 함락 후에도 팔레스타인 땅에 살던 나머지 유대인들은 그대로 살았습니다. 이들은 1948년 나크바 대재앙과 이스라엘 건국 때도 팔레스타인 땅에서 아랍인들과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그때까지 팔레스타인 땅이 “주인 없는” 상태였다는 시온주의자들의 주장은 순전한 거짓말입니다. “땅 없는 사람들이 사람을 없는 땅으로 돌아왔다”는 건 지어낸 얘기입니다.

1900년간의 유배살이라는 신화



- 예루살렘과 그 근교 유대인들만 반로마해방 전쟁 패배 후 추방
- 그 전에 이미 훨씬 많은 유대인이 디아스포라로 살아

“땅 없는 사람들이 사람들 없는 땅으로 돌아왔다”는 거짓말

제1차세계대전 종전 무렵
팔레스타인의 유대인과 아랍인 인구

시온주의가 민족 해방 운동?

이제 시몬주의, 즉 현대의 유대인 민족주의 운동을 서기 66~70년 반로마해방 투쟁에 견주어 말하는 주장의 부적합성에 대해 얘기하고자 합니다.

지난 75년간 시온주의자들은 억압자로서 피억압자 팔레스타인 사람들을 쫓아냈습니다. 반면 서기 66~70년 예루살렘 유대인들은 피억압자로서 억압자인 로마제국을 쫓아내려 했습니다. 더구나 그들은 예루살렘의 부유한 지배계급에 맞서 근교의 농민들과 함께 농민전쟁을 벌였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의 투쟁은 침략자에 맞선 인민 전쟁이었을 뿐 아니라 계급 전쟁이었던 것입니다.

전쟁의 결과로 예루살렘의 지배계급에 기반을 둔 유대인 정파 사두가이 파는 일소됐습니다. 유대인 지배계급이 농민을 제대로 통제하지 못했다는 것에 대한 로마제국의 응징이었습니다. 신약성경의 복음서들을 보면, 지배계급의 정파인 사두가이 파에 대한 예수의 비판이 매우 희소하고 오히려 중간계급 지식인 중심의 정파인 바리새이 파에 대한 비판이 압도적이고 혹독합니다. 이것은 바로 신약성경 복음서들이 반로마 항쟁 이후 시기에 쓰여졌기 때문입니다.

로마와 예루살렘 지배계급에 맞선 예루살렘 빈민들과 근교 농민들은 유대교의 신 외에는 어떤 국가 구조도, 종족성도 단호히 거부한 메시아주의 운동을 벌였습니다.

압제자들인 시온주의자들이 이런 고결하고 명예로운 당대 유대인 운동에 자신들의 수치스럽고 비열한 운동을 견준다는 것은 뻔뻔하고 파렴치한 동일시입니다.

시온주의는 또한 유대인 민족주의 운

동인데, 1세기 당시에는 민족이라는 개념이 없었습니다. 민족은 실제로는 근대의 개념입니다. 흔히들 고대로부터 내려오는 유대 “민족”에 대해 말하며 1세기의 유대인이든, 20세기와 21세기의 유대인이든 추상적으로 동일시해 버리는데, 이는 오류입니다.

예컨대 반로마 해방 전쟁 전야에 팔레스타인에는 엄격히 구별되는 세 개의 지리적·정치적 영역이 있었는데, 그중 예루살렘과 그 근교 사람들만이 반란에 나섰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과 갈릴래아 사람들은 거의 다 유대인들이었는데도 예루살렘의 반로마 항전에 일체감을 못 느껴 거기에 불참했습니다. 물론 좀 더 정확히 말하면, 갈릴래아 사람들은 자체의 계급투쟁에 열렬히 참여하면서 그 일부 소수만이 예루살렘에도 원정가서 그곳 계급투쟁에 참여했습니다.

이런 사회 운동 양상에서 드러나듯이, 1세기 예루살렘과 근교의 유대인들이 팔레스타인에 민족 국가 수립을 목표로 민족 의식과 지향성을 갖고 민족 해방 운동을 했다는 말은 시대착오적인 주장입니다.

발제를 마치면서, 제 얘기가 구약성경을 신뢰하는 분들에게 상처가 될 수 있었음에 대해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저는 유대인 혐오자가 아닙니다. 제가 속한 노동자연대 단체가 팔레스타인인들에게 연대하고 이스라엘을 규탄한다고 해서 유대인 혐오자들이 아님은 제가 단체 기관지 <노동자 연대> 신문에 도 기고한 바 있습니다.

제가 성경의 역사성을 문제 삼는 얘기를 다소 했지만, 성경을 역사 책이 아니라 문학 책으로 읽으면 신앙인에게는 물론이고 비신앙인에게도 감동과 영감, 신선한 통찰을 주는 부분들이 적잖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에스테르

기(에스더)와 아가(아가서)는 신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고, 전도서(코헬렛)는 구약성경 가운데 가장 세속적인 지혜문학이라는 점에서 흥미롭습니다.

다만 저는 시온주의자들이 유대교 경전을 이용해 팔레스타인인 인종 학살을 정당화하는 것이 근거 없음을 밝히려 했음을 강조하면서 발제를 마치겠습니다.

시청자 토론에 대한 발제자의 정리는 신문 웹사이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추천 책



고대 이스라엘의 발명

침묵당한 팔레스타인 역사

키스 W. 휘틀럼 지음, 이산, 384쪽

성경: 고고학인가 전설인가

이스라엘 핑켈스타인/닐 애셔 실버먼 지음,
까치, 440쪽

wspaper.org

더 많은 기사를 웹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새로운 기사들이 수시로 업데이트됩니다.

★ 알렉스 캘리니코스 논평
안토니오 네그리(1933~2023)를
기억하며

★ ‘창원 간첩단’ 사건
검찰, 반국가단체라더니
‘범죄집단’으로 기소

바이든이 의회를 우회해 이스라엘의 학살을 지원하다

미국은 이스라엘에 무기와 포탄을 계속 퍼 주고 있다. 이는 미국이 이 전쟁을 추동하고 있음을 뚜렷이 보여 준다. 12월 8일 미국 국무부는 총 1억 달러가 넘고 1만 4000발에 이르는 탱크용 포탄 판매 계약을 성사시켰다.

미국 대통령 바이든은 이 매매를 신속히 추진하려고 대통령의 비상사태 선포 권한을 이용해 의회 표결을 우회했다.

어떤 면에서 이는, 팔레스타인인들을 상대로 벌이는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미국의 무기를 이용하는 것에 대해 평범한 사람들의 분노가 커지고 있음을 바이든이 의식한다는 것을 보여 준다.

의회 표결에 부쳐졌더라면 미국 국회 의원들이 리히법을 발동해 무기 판매에 반대할 기회를 얻게 됐을 것이다. 리히법이 발동되면 미국 정부는 미국에게서 훈련이나 무기를 제공받는 타국의 군부대가 “심각한 인권 침해”를 저지르지 않았음을 조사·확인해야 한다.

그러나 그 대상이 이스라엘인 경우, 미국은 이제껏 너무도 많은 군사 지원을 했기 때문에 개별 부대를 일일이 조사하기가

불가능해졌다. 그래서 실제로는 무기가 제공되기 전에 조사가 이뤄지지 않는다.

미국 국무장관 앤터니 블링컨은 이스라엘 수도 텔아비브에서 전쟁 내각과 회동해 민간인을 보호하라고 주의를 줬다. 그러나 무기를 판매하면서 하는 그런 말은 별 의미가 없다.

지난 2월 바이든은 무기 이전에 관한 정책을 발표했다.

이 정책은, 미국의 무기가 제네바 협약을 위반해 사용될 “가능성이 그렇지 않을 가능성보다 더 높다고 평가할” 경우 타국에 무기를 보내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 “민간에 속한 대상이나 민간인을 의도적으로 표적 삼아 공격”하거나 “인도주의·인권 관련 국제법을 심각하게 위반하는 여타 경우”를 적시하고 있다.

분명 바이든은 자기 자신이 정한 규칙을 위반하는 데서 전혀 거리낌이 없다.

미국 군수 산업은 팔레스타인인들에게 죽음의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다. 지도자들이 자신의 범죄를 은폐하려



2023년 10월 15일 이스라엘로 무기를 싣고 간 미 공군 수송기

민간인을 신경쓰는 척하며 군수 산업에 돈을 대고 지원하는 덕에, 군수 기업들은 수많은 목숨을 더 희생시켜 막대한 이익을 계속 벌어들일 것이다.

소피 스콰이어

출처 Sophie Squire, 'US protects Israel and blocks UN ceasefire call - Biden by-passes Congress to fund death' (2023. 12. 08) / 번역 김준호

wspaper.org



이스라엘-팔레스타인 전쟁 상황.
팔레스타인 연대 운동 소식, 시위 일정 등
더 많은 정보를 웹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새로운 기사들이 수시로 업데이트됩니다.

교황청의 성소수자 관련 정책, 환영한다 동성 커플 비공식적 축복 허용과 트랜스젠더 세례 허용

12월 18일 프란치스코 교황이 사제들의 동성 커플 축복을 허용했다. 가톨릭 교회에서 축복(강복)은 성직자가 사람이나 물건에 하느님의 축복을 간구하는 종교 의식이다.

이는 가톨릭 교회의 성소수자에게는 의미 있는 진전이다.

교황은 사제들이 “특정 상황”에서 동성 커플이나 “비정상적”인 커플을 축복하는 것을 허용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것이 동성 결혼 일반을 혼인성사로 허용한다는 의미는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그럼에도 이는 2021년 교황청 신앙고리성이 “죄를 축복할 수 없으므로 동성 간 결합을 축복할 수 없다”고 성소수자를 야멸차게 내친 것에서 변화한 것이다.

교황청은 지난달 8일에도 트랜스젠더가 가톨릭 세례 성사를 받을 수 있다고 공식적으로 밝혔다. 세례 성사는 하느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난다는 의미

를 지니고 있다.

이런 변화에는 바티칸의 최근 곤란한 사정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얼마전 ‘교황청의 2인자’이자 보수파인 조반니 안젤로 베치우 추기경이 영국 런던의 고급 부동산 매매 비리 사건에 연루돼 법원에서 징역을 선고받았다. 이 사건으로 교황청은 막대한 투자 손실을 봤다.

이 사건은 교황청의 방만하고 불투명한 재정 운영의 문제를 드러냈다. 특히, 신자들의 헌금으로 조성돼 빈곤층 지원에 쓰이는 ‘베드로 성금’이 투자의 밀천이 돼 교계 안팎으로 크게 비난받았다.

바로 이런 상황에서 교황청이 매우 제한적인 개혁 요구를 수용한 것이다. 일부 나라의 주교들은 전에 사제가 동성 커플을 축복하도록 비공식적으로 허용해 왔다. 2019년 퓨리서치 조사를 보면, 미국 가톨릭 신자 10명 중 6명이 동성결혼을 지지한다.

하지만 이번 조치가 단순히 교황청의 물타기 꼼수만은 아닐 것이다. 베치우 추기경 스캔들로 바티칸 내 진보파의 입지가 좀 더 넓어진 것의 반영일 것이다.

호르헤 마리오 베르골리오 추기경이 프란치스코 교황으로 등장할 당시 그는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가난한 교회’를 내세우며 기대를 한몸에 받았다. 그가 2014년 한국을 방문했을 때도 수많은 평범한 신자들과 사제들이 그의 뒤를 따랐다.

하지만 최근 교황의 행보는 보수파와 타협하며, 기대가 컸던 사람들에게 실망을 안겼다. 단적으로 올해 10월 열린 제16회 세계주교대의원회의(시노드)에서는 많은 사람의 기대와 달리 성소수자(LGBT)라는 단어조차 빠졌었다.

그럼에도 이번 결정을 환영하며, 여기서 더 나아가 동성 결혼이 가톨릭의 사회 교리의 일부로까지 인정되기를 바란다.

성지현

노동자연대 단체에서 가입을 받습니다

위기의 자본주의에 대한 마르크스주의적 대안을 제안하는

노동자연대 가입하세요

workersolidarity.org/join
문의: 02-2271-2395

노동자연대 기본입장 workersolidarity.org/what-we-stand-for

한신대의 유학생 강제 출국 사건

유학생을 돈벌이 수단 삼는 대학과 정부

한신대학교가 부설 한국어학당에 다니던 우즈베키스탄인 유학생 22명을 강제 출국시키는 만행을 저질렀다. 학교 당국은 “외국인 등록증 수령을 위해 출입국관리소에 가야 한다”고 학생들을 속여 버스에 태운 뒤, 곧장 인천공항으로 가 출국시켜 버렸다.

12월 12일 <한겨레>의 보도로 해당 사건이 알려지자 학내외에서 비판이 쏟아졌다.

강성영 한신대 총장은 15일 사과 담화문을 발표했다. 그러나 “철저한 조사와 제도 보완”을 말했을 뿐, 정작 출국당한 유학생들을 구제하는 조치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현재 경찰 수사와 국가인권위의 조사가 진행 중이다.

유학생 통제

정부는 2000년대부터 정책적으로 유학생 유입을 확대해 왔다. 대학들도 더 많은 수익을 올리려고 유학생 유치를 늘려 왔다.

그런데 일부 유학생이 미등록 체류자가 되거나 생활비와 학비를 벌기 위해 정부의 허가를 받지 않고 취업하자, 정부는 대학들에 이를 막으라고 요구했다.

그 수단 하나가 ‘교육국제화역량 인증제도’다. 인증을 받을 수 있는 주요 기준 하나는 소속 유학생의 미등록 체류율이다. 인증을 받은 대학에는 유학생 비자 발급 절차 간소화 등 혜택을 주고, 인증을 받지 못한 대학에 대해서는 유학생 비자 발급을 제한했다.

그러자 대학들은 미등록 체류자 단속반 노릇을 하기 시작했다. 한신대의 유학생 강제 출국도 이런 맥락 속에서 벌어진 것이다.

현재 서울의 한 대학 어학당에서 일하는 한국어강사 A 씨는 대학들이 강사에게 유학생을 감시토록 한다고 말했다.

“모든 어학당이 강사들한테 출석 관리를 엄청 빡빡하게 시킵니다. 결석 사유를 파악해 보고하게 하는데, 결석 사유가 파악되지 않으면 강사들은 퇴근 후에도 24시간 대기 상태가 돼요. 파악되자마자 바로 학교에 보고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내국인 대학생이 결석하면 학점 평가에 반영되겠지만 교수가 사유를 다 알아야 하는 건 아니잖아요. 어학연수생들도 성인인데 이렇게 통제하는 것



돈 될 때만 친구 지난해 6월 강성영 한신대 총장(앞줄 양복)이 유학생들과 단체 사진을 찍고 있다

은 말도 안 됩니다.

“제가 근무하는 학교에서는 팀장급 교직원이 승합차를 빌려 잠적한 유학생들을 찾으러 다니는 일도 있었어요. 그때 찾지는 못했는데요. 이러니 이번 한신대 사건 같은 일도 벌어지는구나 싶었습니다.”

정부는 미등록 체류율이 높다는 이유로 베트남인 유학생에게는 더 불이익을 주기도 한다. 교육국제화역량 인증을 받지 못한 대학에 입학한 베트남인 유학생에게는 더 긴 기간의 통장 잔고(1000만 원) 유지 증명을 요구한다.

정부는 유학생들이 한국에 체류하는 동안 일할 수 있는 시간을 제한하고 있다. 이를 어기면 벌금이나 체류 연장 불허 등 불이익을 준다. 유학 비용을 한국에서 마련하지 못하게 해서 무역 수지를 높이려는 목적이다.

새벽 4시 아르바이트

A 씨는 이런 제한의 부당함을 지적했다.

“어학연수생의 경우 일할 수 있는 시간이 주당 20시간으로 정해져 있어요. 하지만 현실에서는 유명무실합니다. 어학당의 한 학기 등록금이 보통 150만 원 정도 합니다. 1년에 4학기 과정이니 총 600만 원이 들죠. 정부가 정한 시간만 일해서는 등록금과 한국 생활비를 모을 수 없어요.

“결국 어학연수생 비자가 허용하는

한도를 넘어 일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학생들이 수도룩해요. 하루 4시간씩 수업 듣고, 밤늦게까지 아르바이트 하고, 새벽에 일어나서 숙제를 하고 학교에 옵니다.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런 제한 때문에 억울한 일을 당하는 유학생들도 있다.

“수업 시간마다 엎드려서 자는 학생이 있었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 매일 새벽 4시까지 식당에서 아르바이트를 하

고 있다는 거예요. 허용 범위를 벗어나 일한다고 누가 신고해서, 업주가 벌금을 대신 물어 주고 대납한 벌금을 다 갚을 때까지 공짜로 일하라고 했다는 거예요.

“30시간 일하면 불법 사람이고 20시간 일하면 선량한 사람인가요. 이런 기준 자체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A 씨는 이런 상황에서 대학 당국이 강사에게 유학생 출결 관리를 요구하는 것이 엄청난 스트레스라고 말했다.

“학생들이 이탈하지 않게 하려고 어학당은 강사들한테 자주 결석하는 학생을 상담하라고 합니다. 아직 말도 잘 통하지 않는 학생한테 공부에 집중하라는 얘기를 하라면서 말입니다.

“한번은 상담하면서 학생에게 왜 아르바이트를 하나고 물었더니, 번역기 앱으로 ‘집에서 엄마가 기다려요’라고 답하는 거예요. 그 학생의 가족에게 돈이 필요하고, 제가 그걸 책임질 수도 없는데 어떻게 아르바이트를 하라 마라 할 수 있겠어요.

“상담해도 할 말이 없기는 한데, 3개월 단위로 계약해야 하는 고용 불안정 때문에 강사들은 학교 당국의 요구를 거부하기 어려워요. 이게 엄청난 스트레스입니다.”

정부는 이런 부당한 유학생 통제 정책들을 중단해야 한다.

임준형

독자·지지자들의 구독료와 후원으로 발행하는 좌파 주간 신문

노동자 연대 정기구독/후원하세요

정기구독료: 연 50,000원

입금 계좌 (예금주 ㈜레프트미디어)
국민은행 020601-04-080896, 농협 301-0010-1643-71

※ 웹사이트에서 신용카드·핸드폰 결제 가능



wspaper.org/subs2

구독 문의: 02-777-2792, ws@wspaper.org



wspaper.org/online

온라인에서 만나 보세요

새 기사가 계속 업데이트됩니다

노동자 연대 @wspaper
wspaper_org 노동자연대TV

스마트폰 앱으로 만나 보세요

“노동자 연대” 검색

텔레그램 ‘노동자 연대 알리미’

아침에 읽는 <노동자 연대>

매일 아침 7시 30분 이메일로 기사를 배송해 드립니다.
<노동자 연대>와 함께 힘차게 하루를 시작하세요!



발행인 김인식 편집인 김인식 사업자 명칭 (주)레프트미디어 제호: 노동자 연대
발행인필임장번호: 2009년 3월 14일 인쇄인 (주)엔코리아 인쇄소 등록번호: 서울다08179 (주간)
등록연월일 2009년 1월 12일 주소: 서울시 성동구 하왕십리동 946-16 4층 전화: 02-777-2792
제보: 02-777-2791 팩스: 02-6499-2791 email ws@wspaper.org

ISSN 2005-8217

9 772005 821003 50

재일 조선학교 학생 접촉이 “안보 위해”?

김승주

통일부가 조선학교 지원 단체 ‘몽당연필’ 대표인 배우 권해효 씨, 조선학교 학생들의 고교무상화 정책 차별 반대 투쟁을 다룬 영화 <차별>을 제작한 김지운 감독 등에게 “북한 주민을 무단 접촉했다”며 경위를 조사하고 과태료를 물리려 한다.

윤석열은 한일 관계 개선을 추진하면서 민간계 재일동포와의 만남 장면은 여러 번 연출하고 재일동포를 위하는 척했다. 그러나 조선학교 학생들과 교류하고 차별에 맞선 그들의 투쟁에 힘을 보태려 하는 사람들을 범법자로 몰아 재일동포와의 교류를 가로막는 것이다.

통일부의 주장은, 조선학교 학생들은 북한 주민으로 간주(“의제”)되기 때문에 이들을 접촉하려면 사전에 신고해야 한다는 것이다.

윤미향 의원(무소속)이 지난 9월 도쿄 요코야미초 공원에서 열린 관동대지진 희생자 추도식에 참석했다가 우파로부터 ‘반국가행위’로 비난받았을 때도, 통일부는 같은 법적 근거로 과태



다큐멘터리 영화 <차별>(2023)의 한 장면

료 처분을 내린 바 있다.

그런데 신고 여부는 진짜 쟁점이 아니다. 통일부는 사전 신고를 해도 거부하기 때문이다.

최근 조선학교를 연구하려는 학술적 목적의 사전 신고가 거듭 ‘수리 거부’됐다.

통일부는 남북교류협력법의 다음과 같은 단서 조항(9조의2 3항)을 근거로 든다.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

공복리를 해칠 명백한 우려가 있는 경우에만 신고의 수리를 거부할 수 있다.”

이 조항은 헌법 제37조 2항을 준용한 것으로, 국가보안법을 존속케 하는 핵심 근거이기도 하다.

조선학교는 해방 이후 고국에 돌아오지 못하고 일본에 남은 동포들이 2세, 3세에 걸쳐 운영해 온 학교로, 일본어가 아니라 한국어를 사용하며 민

족 교육을 하는 곳이다.

조선학교에 친북 재일동포 단체인 재일본조선인총련합회(총련)의 영향력이 큰 이유는 남한이 조선학교를 외면할 때, 북한은 수십년간 재정을 지원해왔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조선학교 학생들 상당수의 국적(적)은 북한 국적을 가리키는 말이 아니라 분단 이전의 한반도를 뜻하는 말이다. 게다가 학생들 중에 한 국적(남한 국적)을 가진 경우도 절반이 넘는다.

조선학교는 북한 국가가 완전히 통제하는 기관이 아닌 것이다.

일본 정부는 조선학교를 체계적으로 배제·차별했다. 특히 일본公安 기관들은 조선학교를 ‘잠재적 북한 간첩 양성소’로 취급해 상시적으로 감시·탄압해 왔다. 이 때문에 조선학교는 일본 우익들의 주된 공격 표적이 돼 있다.

지금 윤석열 정부의 통일부가 조선학교 학생들을 적대시하는 태도와 근거는 이러한 일본 정부의 억압과 하나도 다르지 않다.

윤석열 정부는 조선학교 학생들과의 교류와 연대를 가로막지 말라.



추천 다큐멘터리 <차별>

일본 조선고교 학생들의 학창 생활과 투쟁

윤석열 정부(통일부)가 문제 삼는 김도희·김지운 감독의 영화 <차별>은 올 해 3월 개봉한 다큐멘터리다.

<차별>은 일본 사회에서 쟁점이 돼 온 조선고교 무상화 제의 사건과 그에 맞선 손해배상 소송 일대기를 다뤘다. 차별에 맞서 싸우는 조선학교 학생과 재일동포들, 그들과 연대하는 일본인들의 모습이 생생하게 담겨 있다.

2010년 4월 일본 정부는 고교 무상화 정책을 외국인 학교까지 모두 포함해 시행하면서, 유일하게 조선고등학교 10곳만은 배제했다.

“조선학교에 취학지원금을 지급하면 이 돈이 어떻게 이용될지 모른다”는 것이 일본 문부성이 재판에서 내세운 논리였다.

총련·북한과의 연계를 문제 삼아 조선고교를 교육기관으로 인정하지 않고 그 학생과 교사를 마치 불순한 존재

라도 되는 것처럼 몰아간 것이다.

이 문제는 재일동포에 대한 인종차별이 일본 권력자들이 조장해 온 체계적 차별임을 다시 한 번 드러냈고 특히 어린 학생들에게 ‘존재를 부정 당하는’ 굴욕감을 안긴 사건이었다.

“우리도 똑같은 학생입니다”

일본 정부는 1945년 해방(일본에는 패전) 이후 일본을 떠나지 못한 재일동포에 대한 인종차별과 폭력을 용인하고 부추겨 왔다.

재일동포들은 서로의 안전과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 조선학교를 설립하고 민족 교육을 이어 왔다.

현재 학생 8000여 명이 조선학교(유치원, 초·중·고)에 다니고 있다.

그러나 일본 정부는 조선학교를 정식 교육기관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그

래서 조선학교 졸업은 학력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조선학교는 정부 지원금은 물론이고 전철 통학권 학생 할인, 무선 인터넷 설치나 코로나 방역 지원 등 매우 기본적인 지원에서조차 배제된다.

2018년에는 북한으로 수학여행을 다녀온 학생들의 개인 소지품을 공항에서 일본 세관이 갑자기 검사해 빼앗아 가는 일도 벌어졌다. 필통, 방석, 쿠션 같은 것들이었다. (현재 영화 <차별> 제작자와 함께 통일부의 압박을 받고 있는 단체 ‘몽당연필’은 당시 일본대사관 앞에서 일본 정부를 비판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일본 정부의 차별과 배제 속에 조선학교 학생들은 일본 우익들의 공격 표적이 돼 왔다.

‘재일 특권을 허용하지 않는 모임’(재특회)을 중심으로 ‘협한’ 우익들은 조선

학교 여학생들을 밀어서 넘어뜨리거나 조선학교 교복인 치마저고리를 칼로 찢어 버리고 도망치는 일 따위를 전철 등 공공장소에서 벌인다.

영화에서 조선학교 학생과 학부모들은 법원 앞에서 패소 소식을 들은 직후 이렇게 울면서 외친다. “배워야 하는 학생으로서 배우고 싶습니다. 우리 아이들도 일본 학생들과 같은 학생입니다.”

“차별이 얼마나 괴로운지 당신들이 압니까. 동무들은 부끄러운 존재가 아닙니다! 자기 자신을 부정하지 말아주세요! 당당히 공부해 주세요!”

조선학교 학생들은 차별과 배제 속에서도 순수한 웃음을 잃지 않고, 재일동포의 삶과 투쟁의 역사를 기억하고 이어 가자고 말한다. 그들의 삶을 영화 <차별>에서 더 많은 사람들이 만나 보길 바란다.

여성 징병제 논란

여성이 강제 징집되면 성평등이 이뤄지나?

성지현

류호정 의원과 금태섭 전 의원이 공동 창당을 선언하며 '젠더 정책'의 하나로 여성 징병제 논의를 시작하자고 제안했다. 이후 류 의원은 여러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개인적으로 모병제를 지지한다면서도, "인구 위기"와 곧 닥칠 "병역 자원 부족"에 직면해 여성 징병제도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물론 여성들이 군대에 자원하는 것이라면 그것을 비난할 수 없고, 여성이라 해서 군대의 특정 분야에서 배제되고 차별받는 것을 반대해야 한다.

그러나 여성 징병제는 여성 일반에게 병역 의무를 강제로 지우는 것이다. 여성의 선택의 자유를 넓히는 것과 정반대다.

현재, 남성들도 충분한 보상 없이 18~21개월 동안 강제로 군대에서 끌려가 인생을 낭비해야 하는 것을 놓고 고통과 억울함을 느끼는데, 이를 여성에게도 확대하자는 것이다. 명백한 퇴보다.

권력자들 일각에서도 여성 징병제를 대안으로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

온 바 있다. 저출생으로 인한 군 병력 감소 우려 때문이다. 대표적으로 올해 5월 신원식 국방장관(당시 국회의원)과 병무청, 성우회(예비역 장성 모임)가 연 '인구절벽 시대의 병역제도 발전' 토론회에서 그런 주장이 나왔다(물론 군 당국은 여성 징병제를 반대하고 있어서 지금으로서는 이런 제안이 현실화될 가능성이 크지 않다).

그런 점에서 류 의원의 이번 제안도 '국익'(실제로는 한국 지배계급의 이익)을 위하는 '책임 있는' 정치인으로 비쳐지고 싶어서인 듯하다. 또, 선거주의적 실리를 생각해 중도보수에게 어필하려는 목적도 있을 듯하다.

이는 모병제를 주장하는 정의당의 입장보다도 후퇴한 것으로 류 의원의 최근 우경화 행보의 일환이다.

징병제하에서 청년들이 받는 피해와 고통을 생각한다면 징병제를 늘릴 게 아니라 모병제로 전환이 필요하다. 물론 모병제가 도입돼도 군대의 본질이 달라지지 않을 것이므로 그것은 불가피한 상황에서의 차악이다.



여성의 군대 자원은 비난할 일이 아니지만, 여성 징병제(강제)는 명백한 퇴보다

여성 징병 지지하는 일부 자유주의 페미니스트

여성 징병제를 지지하는 페미니스트가 다수인 것은 아니다. 그러나 일부 자유주의 페미니스트들은 일찍이 여성 징병제를 지지했다.

2000년대 초에 페미니스트 저널 《이프》의 일부 페미니스트들은 '군대 문화를 개선하고 성차별을 극복하기 위해' 여성 징병제를 주장했다. 양현아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젠더법)도 대표적인 여성 징병제 옹호론자다. 남자만 군대 가는 것이 "성차별"이라며 "군대가 필요로 하면 여자도 가야 한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여성이 군대에 간다고 해서 여성 차별이 완화되는 것은 결코 아니다. 여성 차별은 이 체제에 체계적으로

뿌리내려 있다. 특히 여성 차별은 개별 가족 내에서 여성이 가사·양육을 떠맡고 있는 것과 관련 깊다.

무엇보다 군대의 본질적 성격을 알아야 한다. 군대는 다른 국가와 지정학적 경쟁에서 우위를 점해 자국 지배자들의 이익을 지키거나, 국내의 아래로부터 저항을 막고 계급 지배를 유지하는 무력 기구로 자본주의 국가기구의 중요한 일부이다.

군대가 철저한 상명하복으로 유지되고 나머지 사회보다도 차별과 억압이 만연한 이유다.

여성 징병제는 이런 군대를 더 강화하자는 것이므로 절대로 차별 완화에 기여할 수 없다.

남성만 징병이 역차별?

"여자도 군대 가라"는 말은 강제적 군 복무에 대한 억울함·박탈감을 여성 일반에게 엉뚱하게 돌리는 소수 보수적 남성 사이에서 이따금 나오던 말이다.

예컨대 1999년 군가산점제가 폐지된 후 일각에서 그 대안으로 남녀공동 병역의무제를 주장하며 남성 징병제 위한 소원 등 활동을 펼쳤다.

문재인 정부 때도 여성 징병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몇 차례 있었다. 남성만 징병제는 위헌이라는 소송도 거듭 제기됐다(대부분 각하됐다).

이들은 남성 징병제가 남성에 대한 (역)차별이라고 주장한다. 그래서 여성들도 병역의 의무를 똑같이 지는 게 '평등'이라고 강변한다.

남성들이 병역 의무로 불이익과 고통을 겪는 것은 명백한 사실이지만, 이를 여성에 비한 남성 차별이라 할 수는 없다. 차별은 성, 성적 지향, 인종, 국적 등을 이유로 특정 집단을 구조적이고 체계적으로 열등하게 대우하거나 천대

하는 것이다.

한국 국가가 남성에게만 병역 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여성을 우대해서가 아니다. 더구나 병역 의무에 따른 고통을 여성의 탓으로 돌리는 건 어불성설이다.

사회 불평등 악화

이런 주장들은 실제 현실에 뿌리내린 여성 차별의 현실을 흐리고, '너도 당해 봐라'는 식의 하향 평준화, 사회 불평등 악화일 뿐이다.

그런데도 일부 포퓰리스트 정치인들이 징병에 대한 남성들의 불만을 다른 곳으로 돌리고 '20~30대 남성 표심'을 잡겠다며 젠더 갈등을 부추겨 이런 주장을 키웠다.

예컨대 '안티 페미니즘'을 내세운 국민의힘 의원 하태경이 내세운 남녀공동복무제나, 민주당 박용진 의원이 4.7 재보궐 선거 패배 이후 꺼내든 남녀평등복무제가 대표적이다. 군가산점제 부활도 거듭 제기됐었다.



youtube.com/c/노동자연대TV

☆ 구독

♡ 좋아요

🔔 알림 설정

마르크스주의 관점으로

당신의 눈을 여는 채널

노동자연대 TV

- ▶ 다양한 주제의 온라인 토론회 영상
- ▶ 주요 시사 이슈 팩트부터 논쟁점까지
- ▶ 570여 개 콘텐츠 체계적 분류

- ▶ 팔레스타인에 연대를 저항, 역사, 전망
- ▶ 현대 중국의 모든 것 12강
- ▶ 기후 위기! 체제를 바꾸자 10부작

지금 구독하세요! 온라인 토론회 등 이벤트 일정과 새 콘텐츠 소식을 보내 드립니다.

감염병 전담 공공병원 예산 늘려라

“체계도 경험도 없던 우리에겐 막막했지만 당장 들이닥치는 환자들을 간호하려면 정신을 차려야 했다. 환자의 상태가 좋지 않거나 입원이 많은 날에는 구분도 없이 전부 오염 구역에서 방호복을 입은 채로 대부분의 근무 시간을 보내곤 했다.

“병원 밖에서는 엄지손가락을 들어 올리며 ‘의료진 덕분에’라고 했지만 막상 현장의 우리는 바깥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우리에게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도 못할 정도로 바쁜 하루를 보냈다. 오염 구역에서 퇴실해 식은 도시락을 열면서 뚜껑에 붙어 있는 엄지를 치켜든 모양의 스티커를 보고서야 ‘이런 캠페인이 있구나, 다들 우리를 응원하고 있구나’라고 겨우 생각했을 뿐이다.”

국립중앙의료원 간호사가 쓴 수기의 일부다.

언론은 병원 노동자들을 코로나19 ‘영웅’이라며, “덕분에”라는 구호까지 만들어 칭송하기 바빴다.

정부는 올해 6월 1일 엔데믹을 선언했고 2년여 전 코로나 전담병원으로 지정된 각종 공공병원들(2020년도 상반기 지정된 전담병원 67곳 중 55곳이 공공병원)은 일반병원으로 전환됐다.

코로나 전담병원으로 운영되는 동안 환자는 물론 의료진들도 대거 공공병원을 떠났다. 코로나 환자만 전담했기 때문에 환자들은 다른 병원으로 옮겨야 했고, 그렇게 떠난 환자들은 쉽게 돌아오지 않는다. 일반병원으로 전환된 지 1년이 넘었지만 병상가동률은 40퍼센트 남짓에 불과하다.

그런데 복지부는 공공병원들이 코로나 전담병원에서 일반병원으로 전환하는 기간(이른바 ‘회복기’)을 6개월만



12월 13일 국회 본관 앞 계단에서 열린 공공병원 지원 예산 촉구 노사합동 기자회견

지원했다. 예산이 끊긴 뒤 지방의료원을 비롯한 많은 공공병원들의 적자는 한 달에 최소 10억 원으로 추산된다. 12월부터 현금 보유액이 마이너스로 돌아선 공공병원도 35개 지방의료원 중 절반이나 된다.(2023년 말까지 총 2938억원, 기관당 평균 84억 원가량의 손실)

토사구팽

지방의료원들은 은행에서 임시방편으로 운영 자금을 대출받고 있지만 그나마 내년 1월이면 더는 대출받기도 어렵다. 약재비 등 대금 지급 시기를 미루는 등의 조치도 한계에 봉착했다. 통영적십자병원은 복지부에게서 ‘회복

기 지원 예산이 과다 지급됐다’는 이유로 환수 조치 통지까지 받았다.

2024년 정부예산안에 회복기 지원 예산은 ‘0원’이다. 감염병 대응 예산을 포함해 보건의료 부문 예산도 전년 대비 2조 6000억 원(37.8퍼센트)이나 삭감됐다. 그동안 공공병원들의 손실을 충분히 보상해 줬다는 것이 정부 입장이다.

병원 노동자들이 피땀 흘려 팬데믹 시기 고통을 온몸으로 떠안았음에도 정부는 노동자들의 희생에 토사구팽격의 행태로 일관하고 있다. 현재 공공병원의 예산 지원을 촉구하는 보건의료 노조 대표자 28인의 국회 앞 단식 농성은 12월 19일 현재 16일차에 접어들었다.

한편, 회복기 지원 예산을 포함한 내년도 예산안을 법정 시한 내에 처리하는 데 실패한 여야는 원내대표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가 참여하는 협의체 회의를 진행 중이다.

민주당과 국민의힘 모두 회복기 지원 예산 총원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한다지만, 공공병원 노동자들이 요구한 최소한의 예산인 3500억 원에는 현저히 못 미치는 수준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무엇보다 정부가 완강히 반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의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중 공공병원 비중은 5.9퍼센트, 공공병상 비중은 9.7퍼센트로 OECD 국가 중 최하위 수준에 해당한다(OECD 평균 공공병상 비중은 71.6퍼센트).

이런 상황에서도 코로나 확진자 80퍼센트를 치료한 공공병원 노동자들이 이제 임금 체불을 걱정해야 한다니, 말도 안 된다. 2019년 기준 지방의료원 손실의 90퍼센트가 공익적 비용이었다(보건복지부 2022년 연구 결과).

평범한 사람들이 건강하게 지낼 수 있어야 한다. 이윤을 위해 적절히 치료받지 못하는 부당한 구조가 당연하게 받아들여질 수는 없다.

그러려면 ‘수익성’을 잣대로 공공병원을 내쳐서는 안 된다. 정부는 공공병원이 적자에 허덕이지 않도록 충분한 예산을 지원해야 한다.

이윤과 자본의 입장만 대변하는 정부를 규탄한다. 공공병원 노동자들이 이 말도 안 되는 상황에서 벗어나려면 투쟁에 나서야 한다. 보건 부문의 노동조합들은 이들의 투쟁을 지원하고 연대를 건설해야 한다.

정태권

▶ 16면에서 이어짐

이번 개악안이 바로 이런 난민들, 특히 팔레스타인인들과 연대하는 운동을 겨냥한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정치 난민 중에는 자국 정부의 탄압에 맞선 투쟁에 참가한 경험이 있는 활동가들이 적잖이 있다. 윤석열 정부는 이들이 조직되고 한국에서도 운동에 나서는 것을 막으려는 것이다.

과거에 정부는 이주노동자노동조합의 초기 지도부를 거듭 표적 단속으로 추방해 운동을 약화시키려 했다. 그

들은 미등록 이주노동자 단속과 고용허가제 실시에 반대해 2003~2004년 380일간 이어진 명동성당 농성을 주도했던 경험있는 활동가들이었고 모두 노동자연대(당시 노동자연대다함께) 회원이었다.

정부가 법 개악으로 난민들의 정치 활동을 억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은 난민들의 운동과 팔레스타인인 연대 운동을 정부가 의식하지 않을 수 없음을 보여 주는 것이다.

근래에 이스라엘과 관계를 확대해 오면서 미국과 서방의 이스라엘 지지로 보조를 맞춰 온 문재인·윤석열 한국 정부의 입장에서는 성가신 일이었을 것이다.

더구나 이주민 유입을 늘리려는 한국 정부는 이런 일이 더 자주, 더 큰 규모로 벌어지는 것을 우려해 미리부터 난민법 개악을 추진하는 것이다.

고분고분하지 않은 난민들을 받아들이지 않고 그들의 정치 활동을 억압하

려는 정부의 시도에 반대해야 한다. 국제 팔레스타인 연대 운동을 테러 지지 운운하며 유럽 국가들이 탄압하는 것을 보면, 한국 정부의 시도는 한국인들의 국제 연대도 억누르게 될 것이다.

난민들의 자체 활동을 고무하고, 팔레스타인인 연대 운동 등을 성장시키고, 한국인들도 더 많이 연대하는 것이 윤석열 정부의 의도를 좌절시킬 가장 효과적인 방법일 것이다.

임준형



난민법 개악 반대해야 한다

12월 13일 법무부가 난민법 개악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번 개악안은 “국가안전보장, 질서 유지, 공공복리를 해쳤거나 해칠 우려”만 있어도 정부가 난민으로 인정하지 않을 수 있게 한다. 심지어 정부가 난민으로 인정했던 사람도 난민 자격을 도로 박탈할 수 있다.

정부가 정치 난민들의 난민 인정을 매우 자의적으로 거부할 수 있게 하고, 난민으로 수용해도 압박할 수단을 확보하려는 것이다. 또한 난민들이 한국에서 정치적 운동을 하는 것을 억압하려는 것이다.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라는 문구는 기본권 제한의 일반적인 요건을 담은 헌법 제37조 2항의 문구에서 따온 것이다. 너무 추상적이어서 그대로 쓰면 지난 40년간 수많은 국가보안법 적용 사례에서 봤듯이 기본권 제한의 폭을 정부가 자의적으로 넓힐 수 있는 독소 조항이다.

그런 이 조항조차 구체적인 기본권 제한은 법률로써 하라고 돼 있다. 그러나 법무장관 한동훈은 요건을 구체화한다며 이런 조항을 난민법에 추가하려는 것이다.

두 달 넘게 지속되고 있는 팔레스타인인들과 연대하는 운동에 이집트인 난민들이 적극 참가하고 있다. 그들은 자국에서도 팔레스타인 연대에 참여해 온 경험이 풍부하다. 난민법 개악안이 통과되면 정부가 이런 활동들을 문제삼기가 훨씬 쉬워질 것이다.

이는 한동훈이 난민법 개악안을 입법 예고하며 한 발언에서도 드러난다. 한동훈은 개악안 추진이 특별히 “테러리스트, 테러 우려자 등이 난민으로 인정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라고 밝혔다. 그것이 “글로벌 스탠더드”(서방 우파들의 관행을 가리키는 완곡어)라는 것이다.

윤석열 정부는 10월 27일 유엔 총회에서 채택된 이스라엘-팔레스타인 전쟁 “즉시 휴전” 결의안에 “하마스 규탄이 없다”는 이유로 기권했다. 당시 총회에서 주유엔 한국 대사 황준국은 “한국은 [하마스의] 정당화할 수 없는 테러 행위를 가장 강력한 표현을 동원해 규탄한다”고 발언했다.(물론 12월 8일 유엔 총회에서 채택된 두 번째 휴전 결의안에는 눈치 빠르게 찬성표를 던졌다.)



팔레스타인인들과 연대하는 국제 운동 난민들은 이 운동을 고무하고 보탬이 되고 있다

한국의 현행법상으로 하마스는 테러 단체가 아니다. 테러방지법은 유엔이 지정한 단체만 테러 단체로 인정하는데, 유엔은 하마스를 테러 단체로 지정하지 않았다.

“글로벌 스탠더드”?

그러나 미국, 유럽연합, 영국, 이스라엘 등은 독자적으로 하마스를 테러 단체로 규정하고 있다. 아마도 이것이 한동훈이 말하는 “글로벌 스탠더드”일 것이다. 국정원도 현재 하마스를 웹사이트의 국제 테러 단체 목록에 등재해 놓고 있다. 다른 팔레스타인 저항 단체들과 함께 말이다.

난민법 개악안이 통과되더라도 정부가 팔레스타인인에 연대하는 운동에 참가하는 난민을 곧장 ‘하마스의 테러’를 지지한다고 공격하기는 당장은 어려울 수도 있다.

그러나 무슬림·난민에 대한 편견 등을 이용해 사회 안전을 위협할 수 있다는 식으로 도덕적 공황을 일으키고, 운동에 참가하는 난민들을 마녀사냥하며 위축시키고, 적절한 때를 노려 운동 자체를 탄압할 가능성이 커질 것이다.

특히, 최근 하마스 규탄 국회 결의안을 발의했던 국민의힘 의원 하태경은 하마스를 테러 단체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테러방지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테러방지법상 테러 단체 지정은 국가테러대책위원회(국무총리가 위원장)가 할 수 있도록 고치는 안이다.

그러나 하마스는 팔레스타인인의 대중적 지지를 받으며 저항을 이끌고 있는 정당이다. 그리고 75년간 이어진 이스라엘의 점령과 학살에 맞선 무장 저항은 정당하다.

AP통신은 하마스의 10월 공격이 옳다는 응답자가 서안 지구에서 82퍼센트, 가자 지구에서 57퍼센트에 이른다는 팔레스타인정책여론조사연구소(PSR)의 여론조사 결과를 보도하기도 했다. 아마도 이 수치는 최근에는 더 올라갔을 것이다.

난민법 개악안이 정치 난민과 그들의 활동을 겨냥한다는 점은 이전에 추진됐던 난민법 개악안들과의 차이점에 서도 드러난다.

2018년 예멘 난민 집단 입국 이후 정

부가 2020년과 2021년에 내놓은 난민법 개악안들은 모두 경제적 목적의 난민 신청자들을 거르는 것이었다.

법무부가 보기에 체류 연장이나 경제적 목적 등을 위한 난민 신청은 ‘가짜 난민’이라는 것이었다. 그래서 이들이 불인정을 받으면 이의신청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기간을 대폭 단축하고 취업을 불허할 수 있게 하는 식이었다. 다행히 이 개악안들은 더 추진되지 않았다.

이번엔 난민들의 정치 활동을 겨냥하는 것이다. 그 이후 난민들의 눈에 띄는 국내 활동이 있었기 때문일 것이다.

2022년 이집트인 난민들이 난민 즉각 인정을 요구하며 법무부 앞에서 농성하고 서울 도심에서 시위했다. 한국인들도 연대했다. 한국 정부의 정책에 반대해 난민들이 주도적으로 집단 행동에 나선 첫 사례였다.

규모가 큰 운동은 아니었지만, 국적과 인종을 초월해 유대감을 쌓고 더 많은 난민들이 투쟁에 나설 자신감을 주는 행동이었다.

그리고 올해, 팔레스타인인에 연대하는 운동에 팔레스타인인을 포함한 여러 이주민·난민들이 적극 참가하고 있다. 그들을 통해 전 세계에서 진행 중인 팔레스타인 연대 운동에도 보탬이 되고 고무가 되고 있다.

때마침 이번 난민법 개악안은 팔레스타인인들과 연대하는 운동이 한창인 와중에 입법예고됐다.

▶ 15면으로 이어짐

14차 팔레스타인 연대 집회·행진
이스라엘은 인종 학살 즉각 멈춰라
팔레스타인에 연대를

12월 23일(토) 오후 2시
서울 주한 이스라엘 대사관 인근
(서울 중구 무교로 32 효령빌딩)

주최 팔레스타인에 연대하는 사람들
문의 010-7550-2131
people.freepalestine@gmail.com

*아랍어·한국어 통역 제공

차기 집회·행진 안내
12월 30일(토) 주한 이스라엘 대사관 인근

※후원 계좌: 국민은행 694701-01-227958(예금주 백은진)
보내 주신 후원금은 팔레스타인 연대 집회 개최를 위해 사용됩니다.